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JANUARY / FEBRUARY 2020

통합의료원보 VOL. 57

01/02

통합의료원보

2020 01/02

‘새해는 새로워라
아침같이 새로워라’

“순천향정신은 오직 환자의 행복입니다”

SCH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SOONCHUNH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SOONCHUNH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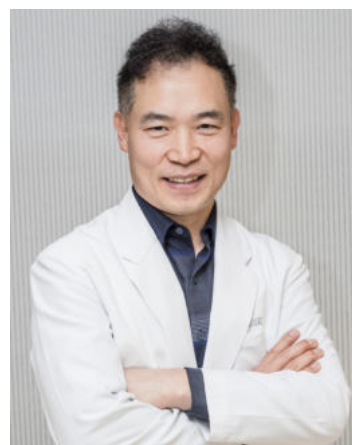
CONTENTS

- 2 **MESSAGE**
신년사

- 7 **SPECIAL**
순천향대 4년 연속 청년드림 최우수 대학 선정

- 10 **LOVE**
구미병원 유란희 환자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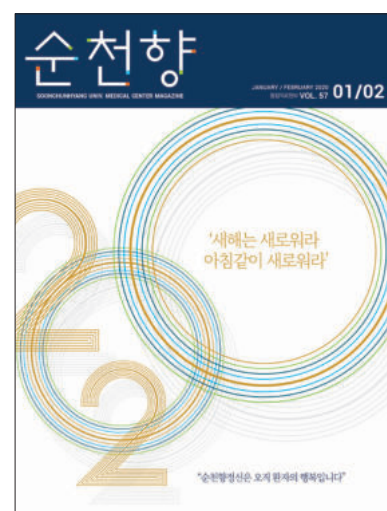
- 12 **DOCTOR**
이성진 서울병원 안과 교수



- 16 **VISIT**
부천병원 '슬림메디센터'



- 20 **FAMILY**
복싱하는 여의사 서려경



2020년 새해를 맞아 환우들과 가족 그리고 순천향인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숫자와 원에 순천향 삼색을 담아 멀리 퍼지라는 염원을 담아 표현했다.

발행일 2020년 1월 20일
 발행인 서유성(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발행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편집위원 이마중, 한세형, 서태원, 유채민
 연락처 02-709-9120 www.schmc.ac.kr
 주소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59
 기획·편집·디자인 파앰플러스 02-2269-5689
 인쇄 아트앰파트너스(주)

SCH NETWORK

‘인간사랑 정신과 의료의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현합니다’



SCH 서울병원
www.schmc.ac.kr/
02-709-9114



SCH 구미병원
www.schmc.ac.kr/gumi
054-468-9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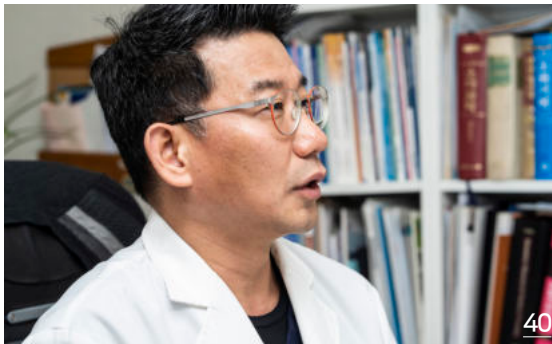
SCH 천안병원
www.schmc.ac.kr/cheonan
041-570-2114



SCH 부천병원
www.schmc.ac.kr/bucheon
032-621-5114



순천향대학교
www.sch.ac.k



22

ISSUE

서울병원, 새 미션 비전 선포

24

ISSUE

부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 평가 전국 2위

26

ISSUE

천안병원, 벡사HD 방사선암치료 2만 건 돌파 및
더블바 오목가슴 교정술

28

ISSUE

구미병원, 지역민을 위한 사회봉사

30

KNOWLEDGE

젊은 유방암 생존자, 심부전 위험 높다

32

KNOWLEDGE

'자가지방 성대 재건술' 개발

34

KNOWLEDGE

노년층에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 질환

36

KNOWLEDGE

'다낭난소증후군' 치료 법

38

EQUIPMENT

벡사HD_4차원 초정밀 방사선암치료기

40

ALUMNUS

순천향의대 8회 임헌관 원장

42

BOOKS

「짜짜한 이야기」

43

NEWS

fly wheel effect

“‘플라이휠 효과’를 극대화하는 원천은 오직 순천향 가족의 단결과 화합입니다”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총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향 가족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새로워라 아침같이 새로워라'라는 피천득 선생의 시처럼 새해는 아침처럼 우리 앞에 성큼 다가 왔습니다. 순천향 가족 모두께 멋진 한해를 맞으시라는 인사를 전합니다. 새로움에는 늘 가슴 설레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해를 보내고 맞이하는 일은 늘 반복되지만, 다시 기운찬 도약을 꿈꾸게 되는 이유입니다. 새해 아침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맑은 태양처럼, 2020년이 우리 병원과 순천향 가족 모두에게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길 기원해봅니다.

우리 병원에게 지난 한 해는 자신감을 얻고 성취를 맞본 해인 것 같습니다. 순천향 가족들의 한결같은 헌신과 노력이 이런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미완의 과제는 많이 남아있지만, 지금까지처럼 합심하며 노력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 동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그런데 2001년에 아마존은 매출이 월마트의 60분의1밖에 안되고 101달러까지 갔던 주가가 10달러로 떨어지면서 일대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마존에서 짐 콜린스를 불러 강연을 들었는데요 그 이후 아마존은 승승장구해서 지금의 최강 아마존이 되었다고 합니다. 짐 콜린스는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바로 유명한 fly wheel 개념입니다. 기업을 잘 운영하는 것은 큰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대한 수레바퀴를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료수입이 늘어나고 재정여력이 생기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힘으로 천천히 수레바퀴를 돌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재정 여력으로 실력 있는 교수진과 교직원들 모셔오거나 기존의 인력을 교육하여 더 좋은 맨 파워를 가지고, 또 좋은 복지 와 처우를 해서 사기를 올려 그 힘으로 수레바퀴를 옆에서 돌립니다. 그러면 그 좋은 인력들이 효율적으로 장비를 사고 시설을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해서 그 힘이 수레를 돌립니다. 그러면 결국 환자 만족도가 좋아지고,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견으며 무엇보다 치료성적이 좋아질 것이고 그 힘으로 수레는 다시 돌아 진료수입이 더 느는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한번 도는데 는 천천히 가겠지만 두 번 세 번 수백 번 도는 동안 그 속도는 어마어마해 질 것이고 이 거대 수레바퀴가 빠르게 돌아가면 우리의 미션인 “순천향은 인간사랑 정신과 의료의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현한다”도 자연스럽게 달성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이휠 개념이고 위대한 조직을 만드는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레바퀴를 돌리는데 집중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단결과 화합입니다. 2020년 새해벽두에 다시 신뢰와 화합을 생각합니다. 올 한해 우리 순천향 가족이 더욱 서로 믿고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순천향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힘과 재능을 모아 외부의 위협에 맞서고 더 멋지고 좋은 순천향을 만들어 가는 수레를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한 사람의 힘과 지혜는 여러 사람의 힘만 못하고, 여러 사람의 힘은 여러 사람의 지혜만 못한 법이다.” 한비자의 말입니다. 올 한해 순천향인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위대한 순천향을 만들어 갑시다.

새해, 우리 순천향 가족여러분과 그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순천향대학교 총장 서교일

“순천향 정신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발전해 나갑시다”



김성구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및 부속병원 교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흰쥐의 해'인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우리 순천향대학교와 부속병원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순천향대학교가 2019년 동아일보 청년드림 대학평가에서 4회 연속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서울병원에서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의료전달체계, 공공성 평가 영역에서 최고 등급인 '1-'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부천병원은 다빈치 XI 로봇수술 1,000례를 돌파하였고, 천안병원은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하여 외래 진료관 증·개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미병원은 주차타워를 증축하여 내원객들의 주차 편의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의료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모든 병원들의 경영실적도 목표한 바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직원 모두가 지난 한 해 병원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사장으로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영학의 귀재 피터 드러커는 “기업이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실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병원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지난 한 해 이루었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주위 의료 환경은 계속 변하고 있으며 항상 치열한 경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금년 한 해에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계속 발전해나가야겠습니다.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2020년 올해 의료원 산하 4개 부속병원의 미션을 “순천향은 인간사랑 정신과 의료의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현한다.”로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교직원 한 분 한 분이 본인이 맡은 일에 대해 열정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고 또한 조직에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순천향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 의료원과 각 병원에 새로운 보직 변경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에 서유성 원장님이 취임하였으며 서울병원장직도 겸하게 되었고, 부천병원은 신웅진 병원장님, 천안병원은 이문수 병원장님, 구미병원은 임한혁 병원장님들이 연임하였으며 일부 부원장님들과 보직 교원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보직자께서는 심기일전하여 금년 한 해도 많은 성과를 이루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금년 경자년은 흰 쥐의 해입니다. 쥐는 다산 번영을 의미하며 특히 흰쥐는 머리가 영리하며 지혜롭다고 합니다. 금년 한 해 순천향대학교 부속병원을 새로운 보직자분들과 교직원들이 함께 지혜롭게 운영하여 우리의 새로운 미션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순천향을 사랑해 주시는 교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0년 1월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 김성구

“새로운 직책에서 무거운 사명감으로 ‘앙트레프레너 의료원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서유성
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

사랑하는 순천향 의료원 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에는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고 즐거운 일이 많은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부터 제22대 중앙의료원장을 맡게 된 서유성입니다. 개인적으로 기쁘고 영예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큼니다. 중앙의료원장의 역할과 함께 대학의 의무부총장과 서울병원장직도 겸해야 하는 자리라 더욱 큰 중압감이 있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서교일 총장님과, 김성구 이사장님, 부속병원 병원장님들과 순천향 중앙의료원 교직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순천향 중앙의료원 가족 여러분.

현재 우리 중앙의료원은 전문의 720명을 포함, 전체 교직원 6,500명, 월평균 외래환자 215,000명, 2,900 병상에서 월평균 77,000명의 입원환자, 5,600건 이상의 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2월에는 연간 의료수익 1조원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의료기관 8위에 해당하는 고무적인 성과로서 이제 순천향은 국내 최상위 의료기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규모와 위치에 걸맞게 앞으로는 “인간사랑 정신과 의료의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현한다.”라는 새로운 미션을 통해 비단 우리만의 성장 뿐 아니라 의료계 및 사회 내에서 순천향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소병원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외에 순천향의 선진 의료기술을 전달하는 등 인간사랑이라는 고귀한 가치관을 사회에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환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치료를 맡길 수 있도록 더욱 안전하고 실력 있는 의료원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미래는 정말 불확실하고 암울하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만이 가진 인간사랑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각 부속병원과 의과대학이 조화롭게 제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의료원이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와 소통을 통해 통합의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우리의 100년을 넘어 200년 역사를 선도할 수 있는 순천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앙트레프레너’, 저는 앞으로 ‘앙트레프레너 의료원장’이 될 것입니다. 중앙의료원의 교직원 한 명 한 명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고,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교직원들이 작은 변화를 시작하고, 그 변화가 순천향을, 나아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앙트레프레너 의료원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항상 응원하여 주시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미래를 함께 꿈꾸고 기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올 한해 순천향 중앙의료원의 발전과 순천향 가족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 1월
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 서유성



서유성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병원장

인간사랑 정신과 의료의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 및 가치 실현

교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만큼 여러분 모두 더 건강하시고 복도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해는 특별히 미션과 비전을 새롭게 선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료원 전체가 공유할 미션은 ‘순천향은 인간사랑 정신과 의료의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현한다.’입니다. 의료는 이제 진료 교육 연구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함께 경제적 이윤 및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미션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비전은 환자(고객)와 직원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병원, 최상의 진료로 모두의 건강을 약속하는 병원, 혁신적 연구로 미래의 리더가 되는 병원 3가지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가치, 즉 우리 스스로 지켜가야 할 행동약속은 많은 교직원들과 특히 미래를 책임질 젊은 교직원 선생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안전(Safety), 소통(Communication), 행복(Happiness), 전문성(Specialty), 신뢰(Confidence), 정직(Honesty)으로 정했습니다.

새로운 미션과 비전, 행동약속을 바탕으로 매년 8% 이상 의료수익을 창출하고, 의료비용은 성장대비 -5%이상 감축해서 재무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와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보직자와 중간관리자 여러분은 극한 오피스를 발휘해 주시고, 교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병원장 서유성



신응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병원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병원이 무탈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신 모든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원장단이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새 원장단은 새로운 10년을 맞이하여 병원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영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전문화된 중증종합병원입니다. 이를 위해 중증환자 진료를 더욱 전문화·고도화하고, 암병원, 뇌신경병원, 심혈관병원과 같이 규모를 확장해야 합니다. 현재 제한된 공간 때문에 확장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의 방법을 찾아 전문화된 중증종합병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임상 연구의 거점병원입니다. 세계 최고 대학병원들이 그 위치를 유지하는 원동력은 바로 임상 연구에 있습니다. 부천병원은 작년에 미래의학관을 개관했고, 현재 빅데이터 구축 사업인 CDM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교수님들은 이를 잘 활용해 지금보다 더 활발히 임상 연구, 특히 중개 연구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건실한 병원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생존하는 시대입니다. 향후 10년, 20년을 보고 의료 질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기반이 튼튼한 병원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 순천향을 위한 길입니다. 이를 위해 재무적으로 지속적인 재정 흑자와 안정적인 기금 적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 나갑시다. 다시 한 번 2020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병원장 신응진



이문수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병원장



임한혁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병원장

“나날이 새롭게 혁신하며 감동의 기억을 선사한다”

순천향 가족 여러분! 2020년 새해 희망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새해가 되면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지만 올해는 지난 10년을 되짚어 보게 하는 특별한 한 해입니다. 병원경영의 책무를 이어온지 어느덧 십유여재(十有餘載)라 생각하니 어느 때와 다른 감회를 느끼며 새로운 각오를 다져봅니다. “고객중심의 병원이 되어야 한다”는 10년 전의 다짐을 여러분과 함께 꾸준히 이어오면서 ‘창조적 의료문화를 선도하는 중부권 최중거점 병원’이라는 우리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로 따뜻한 마음을 건네고 매일아침 한마음으로 고객 감동실천선언문을 되새기면서 “순천향은 사랑입니다”라는 우리만의 문화를 완성했고, 드디어 순천향 가족 모두 함께 꿈꾸었던 새병원 건립의 첫 삽을 뜨는 특별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2020년은 새병원 건립 때까지 여러 사안을 지혜롭게 풀어 나아가야 할 과도기의 첫 해인 만큼 올해의 슬로건은 “나날이 새롭게 혁신하며, 감동의 기억을 선사한다”입니다. 혁신은 나날이 새롭게 이어져야 하고, 우리병원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과 우리가족 서로에게 감동의 기억을 선사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병원의 오늘에 가장 필요한 혁신을 디자인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창조적 파괴’입니다. 과감히 건어내고 고쳐내겠습니다. 알면서도 이어가는 잘못된 관습, 알면서도 이어지는 구태, 알면서도 변하려고 하지 않는 매너리즘, 이 부분이 우리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창조적 파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슬기롭게 풀어가겠습니다.

또한 감동의 기억을 선사해야 합니다. 감동의 기억은 잊혀지지 않고 두고두고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감동받았던 기억들과 같은 소중한 마음의 선물을 우리병원을 찾는 모든 분들과 우리가족 서로에게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순천향을 신뢰하고 다시 찾는 고객중심의 병원,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순천향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새 병원 건립의 첫 삽을 뜨는 희망의 2020년 새해, 인간 사랑의 정신을 전학이념으로 남겨주시 향설 박사님께서 그토록 꿈꾸시던 한국의 메이오클리닉을 천안에 완성하겠다는 그 다짐을 순천향 가족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2020년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20년 1월
순천향대학교 부속병원 관리원장 겸 천안병원장 이문수

지역 최고의 경쟁력 확보와 교직원이 행복한 병원으로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개원40주년을 맞이하여 대내외 많은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확대, 주차장 증축공사와 인공신장실, 재활치료실, 분만실 등의 확장 및 리뉴얼 공사를 통해 많은 변화와 성장을 이룬 한해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병원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2030년을 향한 새로운 중장기 비전수립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혜를 함께 모아 40년의 전통에 걸맞은 지역에서 최고의 경쟁력 있는 병원으로 성장시켜 모든 교직원이 행복한 병원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새해에는 병원발전의 원동력과 밑거름이 될 외래관 증축공사와 시설 리뉴얼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외래관 증축과 병원시설의 확대를 통해 질환 중심의 전문화된 각종 센터와 클리닉으로 재배치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환경과 전문화된 진료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료, 연구, 교육을 통해 의료수준을 높이고 명실 공히 대학병원으로써의 기틀을 잡는 한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수한 교원의 충·증원을 통해 진료의 전문성을 증대시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절대적 신뢰를 받는 경북중서부권 최고의 병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와 참여를 통한 탄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상호 배려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직문화는 노사가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며, 부서 및 직원 상호간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설립이념인 인간사랑의 순천향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한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연초에는 그동안 준비해온 의료기관 인증평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교직원이 함께 힘을 모아 평가에 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40년을 통해 키워온 역량을 바탕으로 하여 희망찬 100년을 향한 기반을 다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 1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병원장 임한혁



2019년 ‘청년드림대학’ 평가에서 4회 연속 최우수 대학 선정

빅데이터 활용한 취업 지원 노력 높이 평가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생들의 취·창업을 지원해왔던 순천향대학교의 취·창업 지원 노력이 대내외적으로 다시 한 번 인정을 받았다. 순천향대학교는 지난해 12월 9일 동아일보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 리서치업체인 마크로밀 엠브레인과 함께 실시한 2019년 ‘청년드림대학’ 평가에서 4회 연속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글 김지홍

순천향대학교가 고용노동부와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 한국고용정보원이 주는 ‘2019년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학생 진로지도와 취·창업 지원이 가장 우수한 대학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순천향대학교를 비롯, 모두 12개의 대학이 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12월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이뤄졌으며 서교일 총장이 참석해 직접 동아일보사장상을 받았다. 동아일보는 빅데이터를 활용, 꾸준히 학생 취업을 지원해 온 순천향대학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시상식에 앞서 서교일 총장은 고용노동부와 동아일보, 한국고용정보원이 주최한 좌담회에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

관과 한국고용정보 원 이재홍 원장, 그리고 수상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좌담회는 ‘청년 일자리 정책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진행됐다. 예정된 시간을 넘겨 50분가량 진행된 좌담회에서 서교일 총장은 취업의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지적하며 정부가 나서 각 대학에서 일하는 컨설턴트를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서 총장은 “지방의 기업들은 학 생들을 찾는데 학생들은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라며 “컨설턴트가 상담 과정에서 학생의 정확한 수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 주기 때문에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졸업생들 학점, 어학성적 등 취업 스펙을 분석한 빅 데이터 구축
이번 평가에서 순천향대학교는 과거 졸업생들의 학점과 어학성적 등 취업 스펙을 분석한 빅 데이터를 시스템으로 구축함으로써 재학생이 스스로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것을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내 우수 대학의 취업 지원 역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청년드림대학’ 평가는 2013년 부터 시작돼 올해로 5회를 맞았다. 2015년까지는 매년 실시되다가 2017년부터 격년제로 바뀌었다. 이 평가의 주요 평가지표는 대학이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하는가 하는 점과 진로지도 시스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에 초점이 맞춰 져 있다.

올해는 전국 4년제 224개 대학 중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정보를 통해 46개 대학이 청년드림 대학의 영예를 안았다. 이 중 4회 연속 ‘청년드림대학’의 영예를 안은 곳은 순천향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단 세 곳뿐이다.



어려운 취업 준비 “한방에 끝!”

취업,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쌓인다. 취업 자체가 주는 중압감만으로도 숨이 막히는데 준비과정 은 더 복잡하고 짜증난다. 관련 분야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맞춤 면접을 준비하는 일은 보통 까다롭고 복잡한 일이 아니다.

취업, 정말 너무너무 어렵다!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위해 순천향대학교가 말 그대로 ‘원스톱 취업 준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교내 아 이디자인(IDESIGN)관 1층에 가면 취업 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신입사원을 뽑는 많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VR면접시스템으로 가상 면접을 진행해 볼 수도 있다. 또 AI분석 셸프뷰로 나의 면접 태도를 점검하고, 4학년 전용 JOB카페에서 지원관의 도움을 받아 입사원서를 작성해 볼 수 있다. 어려운 취업 준비 한 방에 끝내는 순천향 대학교의 ‘원스톱 취업 준비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보자.

▲VR면접시스템 다른 대학에 앞서 순천향대학교가 초창기에 도입한 실시간 생방향 VR면접 프로그램이다. 헤드셋을 쓰면 면접관이 모니터에 나타나 피험자가 지정한 분야의 각종 질문을 던진다. 이 시스템의 강점은 프로그램이 피험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읽는다는 것. 가령 피험자의 태도가 불안정하거나 탄정을 피우고 있으면 자세를 똑바로 하라거나 집중하라고 지적한다. 또 유관 질문과 꼬리 물기 질문도 할 수 있어 피험자의 대답에 따라 유사하거나 관련된 질문을 계속해간다. 가상현실로 면접 시험장의 분위기와 경험을 바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다.



“
어려운 취업 준비 한 방에 끝내는
순천향대학교의 ‘원스톱 취업 준비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보자.
”

▲AI분석 셸프뷰 인공지능이 나의 면접 태도를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피험자가 취업하고 싶은 분야를 지정 하면 모니터에 면접관이 나와서 면접을 진행하는 데, 이때 모니터에 달린 카메라가 피험자의 면접 과정을 모두 촬영한다. 그리고 이 촬영된 내용을 AI 기반으로 분석해 피험자의 표정이나 말하는 속도, 음성의 톤, 자주 반복하는 단어 등을 모두 분석해 분석 결과를 메일로 피험자에게 보내준다. 가상현실 기반으로 실감나는 면접 현장을 경험해 볼 수 있다. AI가 분석한 자료를 태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나의 행동이나 언어습관을 교정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면접을 대비할 수 있다.

▲4학년 전용 JOB카페에서는 수많은 기업체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 기업정보시스템은 순천향대학교 에서 자체 개발한 것이다. 이 정보시스템의 목적 은 각 학생의 여건에 맞는 취업 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 카페는 실제적인 입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는데, 취업전문부스도 마련돼 있고 지원관도 배치돼 있어서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을 바로바로 제공받을 수 있다.

東亞日報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취업창업 지원-진로지도 뛰어난 '2019 청년드림대학'

성균관 순천향 한양대
4연속 청년드림 최우수

(가나다순)

본보-고용부-마크로밀엠브레인 공동평가

경운 동명 아주 인하 최우수 진입
고려 연세 등 15곳은 우수대학에

올해 취업·창업 지원 역할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청년드림대학' 평가에서 성균관대 순천향대 한양대가 각각 4회 연속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 대학들은 과거 졸업생의 학점과 어학성적 등 취업 스펙을 분석한 빅데이터를 시스템으로 구축함으로써 재학생이 스스로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것을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동국대 선문대 한국기술교육대는 각각 3회 연속 최우수에 선정됐고, 아주대와 인하대는 다시 최우수에 진입했다. 경운대와 동명대는 이번에 청년드림대학에 처음 선정되자마자 최우수에 올랐다. 9일 동아일보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 리서치업체인 마크로밀 엠브레인과 함께 실시한 2019년 청년드림대학 평가 결과에 따르면 아주대 등 10개 대학이 최우수에 선정됐다. 2013년 시작된 청년드림대학 평가는 올해 5 회째다. 2015년까지 매년 실시하다가 2017년 격년제로 바뀌었다. 대학이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하는지와 진로지도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올해는 전국 4년제 224

2019 청년드림대학 선정 결과

가나다순.

구분	대학
최우수	경운대 동국대 동명대 선문대 성균관대
청년드림 대학	순천향대 아주대 인하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양대
우수	가천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세종대
청년드림 대학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인천대 중앙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항공대 한남대 한서대
가톨릭대 가톨릭관동대 경일대 광주대 계명대 단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동서대 동의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세명대 영남대 원광대 전주대 중부대 충남대 한림대 호남대 호서대	

개 대학 중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정보를 통해 46개 대학이 청년드림대학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 청년드림대학'에는 가천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등 15개 대학이 선정됐다. 연세대 한국항공대 한남대 한서대는 이번엔 청년드림대학으로 처음 선정되면서 우수에 이름을 올렸다. 경희대와 세종대는 우수로 한 단계 상승했다. 가톨릭대와 단국대 등 21개 대학이 청년드림대학에 선정됐으며, 이 중 12곳이 처음 이름을 올렸다. 동아일보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에 선정된 청년드림대학과 대학알리자센터 운영 대학 중 우수 사례를 심사해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으로 시상할 예정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A3·4면에 관련기사

(14,1·20,1)cm

‘2019 충남 청년 잡다(JOB多)한 페스티벌’등 다양한 구직활동
순천향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을 돕는 이런 시스템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2019 충남 청년 잡다(JOB多)한 페스티벌’. 지난 11월 7일 순천향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충남지역 청년 구직자 2천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체육관 안에는 6개 관 87개 부스가 마련됐으며 도내 우수기업 50개사가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페스티벌에서 눈길을 끈 행사는 기업/기관의 채용설명회. 이 설명회는 ‘채용 면접관’ 내에 마련된 46개 부스에서 이뤄졌는데, 참여 기업들의 현장 면접과 영상 면접, 키오스크를 통한 기업 정보 안내 같은 서비스들이 제공됐다. 또 ‘취업정보설명관’에서는 공공기관/금융권/글로벌 취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직무/직종별 청년정책 정보가 제공됐다. 이번 행사는 순천향 대학교가 충청남도와 충남경제진흥원과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로, 충남지역 청년 구직활동에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순천향대학교는 그동안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해왔으며, ‘취·창업 전문 카페 고고쓰나 잡다한 페스티벌’도 이런 노력 가운데 하나이다. 

“또 다시 희망찬 삶을,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란희 환자와 김대근 교수의 따뜻한 이야기

삶이란 절망 속에서도 또 다시 희망을 찾아 떠나게 되는 여행의 지속이다. 유란희 씨에겐 더욱더 그렇다. 2010년, 유 씨는 고향인 북한을 떠나 무조건 남한으로 향했다. 그가 살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택한 탈북길이었다.

글 웅석규 사진 임상협

북에서 남으로, 새 삶 찾아 떠난 고된 길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 북한체제에 반하는 발언을 술자리에서 친구들에게 했어요. 그때 함께 자리를 하고 있던 남편의 친구가 남편의 그러한 발언을 당에 고발했고, 남편은 바로 끌려가 총살형에 처하고 말았죠. 시댁 식구들도 모두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당시 3살된 늦둥이 아들도 남편의 자식이란 이유로 수용소로 가야할 처지에 놓였었는데, 그렇게 아들을 보낼 순 없어서 무조건 아들을 안고 탈북을 해야만 했어요.” 유 씨는 어린 아들을 안고 그의 일터와 살터가 있던 평양에서 도망쳐야만 했고, 그 과정 중 어두운 밤에 북한의 국경 경비대에 쫓기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아들의 목숨이 우선이었던 유 씨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온몸으로 아들을 감싼 채 절벽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발길을 멈출 수는 없었다. 그때 다친 무릎과 왼손은 훗날 그에게 두번째 절망을 안겨 주고야 말았다. 북한 남포에서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그리고 다시 대만을 거쳐 그가 남한 땅을 밟게 되기까지는 무려 1년 8개월이 나 걸렸다.

손목 통증으로 인해 또다시 무너진 삶

남한에 도착 후 탈북 과정에 다친 무릎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왼손이었다. 한 명의 친인척도 없는 남한에서 아픈 손을 치료받기 보다는 돈을 벌어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탈북 과정 중 다친 무릎과는 달리 왼손의 통증은 그리 심하지 않았던 것도 치료를 미뤘던 이유였다. 분식집, 치킨 집 등 그녀는 생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며 어린 아들과의 따뜻한 미래를 차곡차곡 그려가고 있었지만, 2017년에 참지 못할 통증이 왼손에 번지기 시작했다.

“식당을 운영하며 손을 많이 사용해야 했는데, 손가락 구부리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워 절망 속에 빠져 살았어요. 매일 울며 지내야 했고,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려고 나쁜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는 당장 생업을 이어갈 수 없으니,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을 치료비 걱정이 앞서 선불리 병원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간신히



이어오던 그에게 실낱 같은 희망이 찾아왔다. 구미시청의 희망복지지원단이 그의 딱한 사정을 알게되어 순천향대 구미병원에 의료지원을 요청하여 김대근 교수에게 수술을 받게 되었고 변정숙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게 되었다.

다시 희망을 찾게 해준 순천향대 구미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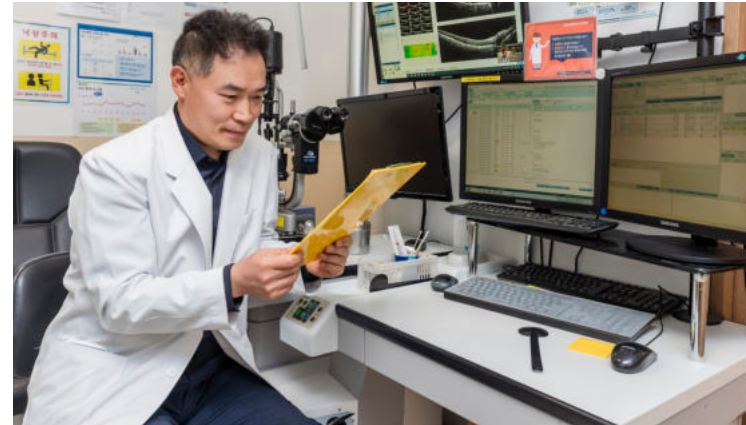
유 씨의 치료를 도맡아온 순천향대 구미병원 정형외과 김대근 교수는 유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왼손의 상태가 심각함을 바로 알아차렸다고 했다. 유 씨의 병명은 ‘척골양성변형을 동반한 척골충돌증후군’ 유 씨는 탈북 과정 중에 다친 것이 손목 통증의 원인으로 알고 있었지만, 김 교수의 진단은 달랐다. “손목을 이루고 있는 요골과 척골이라는 뼈 중, 척골의 길이가 어릴 적 성장판을 다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비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유 씨의 경우도 아마 어렸을 적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증상이 시작이 되었을 텐데요. 탈북 과정 중 당했던 낙하사고로 인해 척골이 충격을 받아 이전에는 없었던 통증이 서서히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자란 척골이 손을 사용할 때마다 다른 뼈들과 부딪히면서 큰 통증을 유발하게 된 것이죠.” 유 씨는 비정상적으로 자란 척골을 잘라내 길이를 줄이는 ‘척골단축술’이라는 수술을 받아 지금은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수술 직후 이어진 재활치료도 쉽지 않은 않았다. 수술을 마친 뒤 적시에 손가락이나 손목 등을 움직이며 다시 손을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움직임 또한 수술 후의 통증으로 인해 유 씨를 힘들게 했다고 한다. “아프다고 재활치료나 재활운동을 게을리 했다면 란희 씨도 지금처럼 손목을 잘 쓰게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겠지만, 잘 참고 극복해준 란희 씨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김 교수는 당연하게 힘든 과정을 버텨온 유 씨를 웃는 얼굴로 바라보며 ‘잘 참아줘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란희 씨가 치료를 받기 전에는 병원에서 저를 볼 때마다 하염없이 우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표정도 밝아지고, 늘 웃으세요.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힘든 치료과정을 거쳐 온 란희 씨가 앞으로 행복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당장 생업을 이어갈 수 없으니,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을 치료비 걱정이 앞서 선불리 병원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간신히 이어오던 그에게 실낱같은 희망이 찾아왔다. 유 씨는 이제 또 다른 삶을 준비하기 위해 매일 매일을 행복하게 살고 있다. 앞으로 손을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면,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활동하며 자신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했다. “김대근 교수님, 변정숙 복지사님은 절망으로 가득했던 제 삶에 다시 희망을 채워 주신 분들입니다. 순천향대 구미병원에서 두 분의 도움으로 저는 아픈 손목 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신 두 분의 사랑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저도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매일 웃으며 살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로 산다는 것, 환자와 소통하는 것”

의사의 목소리에 유독 의존하는 환자들이 있다. 의사의 얼굴을 또렷하게 볼 수 없거나 전혀 볼 수 없는 안(眼)질환자들이다. 그래서 안과 전문의는 더 친절하고 더 잘 소통해야 한다고 말하는 안과 전문의가 있다. 낮에는 환자들에게 의학용어를 쓰지 않는 ‘쉬운 의사’, 밤에는 망막 전문 이야기꾼 칼럼니스트, 한밤중에도 수술하는 안과 의사, 또 어느 땐 사비까지 털어 환자들을 초청해 콘서트를 여는 ‘낭만닥터’. 이성진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진료부원장이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환자와 소통하는 게 가장 ‘기쁜’ 그를 만났다.

글 이승우 사진 임상협



“심청의 아버지 심학규 씨는 선천적인 시각장애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초고도(超高度)근시’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된 건 7세 이후로 추정됩니다. 안과계에 떠도는 가설이긴 합니다만.” 엉뚱한 상상력이 발동해 그냥 한번 물어봤을 뿐인데 너무 진지하게 진단을 내리는 바람에 순간 빠져들었다. ‘심학규 씨라고 해서 더 그랬는지 몰라도 그 심학규 씨가 실존 인물인 줄, 아니 정말 살아 있는 사람인 줄 착각이 들 정도였다. ‘심학규 환자’의 주치의를 자처한 의사는 이성진 순천향대 서울병원 안과 전문의이자 진료부원장이다.

명의(名醫) 마다하는 통의(通醫)

기왕에 심학규 씨를 현실로 소환한 김에 이 부원장의 얘기를 더 들어보자.

“초고도근시로 진단하는 근거는 결말에 가서 죽은 줄만 알았던 딸과 상봉하는 순간 놀라서 눈을 뜬 대목에서 찾을 수 있죠. 초고도근시는 눈알이 극도로 커지면서 렌즈를 통과한 빛이 망막에 상(像)을 맺지 못하는 상태가 돼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겁니다. 실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수술을 통해 렌즈를 제거하면 그만입니다. 아주 가끔은 수술하지 않고도 어떤 충격 때문에 렌즈가 저절로 눈 속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학규 씨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다고 봅니다.”

하마터면 “심학규 씨가 부원장님을 만났어야 했네요. 그랬으면 생때같은 딸이 공양미 삼백석에 팔려 인당수에 몸을 던지지 않았어도 됐을 것일” 하는 감탄이 터져나올 뻔했다. 이 부원장에게 치료를 받아 빛을 찾은 수많은 환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심학규 같은 고전 속 허구의 인물까지 자신 있게 진단할 수 있다면 ‘명의(名醫)’라는 찬사가 전혀 아깝지 않다. 하지만 정작 이 부원장은 ‘명의’는 가당찮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정녕 명의가 싫다면 다른 표현을 찾아야 한다. 명의 대신 ‘통의(通醫)’는 어떨까. 어떤 환자라도 소통할 수 있는 의사 말이다.

의학용어를 쓰지 않는 의사

이 부원장은 환자 앞에서 의학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

“의학용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전문분야를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전문가 아닐까요? 의사가 무심코 의학용어를 쓰면 듣는 환자는 어려워하고 어려움은 곧 두려움이 되고 맙니다.”

〈후생신보〉에 칼럼으로 연재한 수백 편에 달하는 ‘이성진의 망막이야기’도 그런 쉬운 소통의 역작들이다. 비전문가들에게도 술술 읽힌다. “하루는 아이가 아빠는 어떤 의사냐고 물었는데, 설명하면 할수록 어려운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에 듣는 아이도, 말하는 저도 힘들더라고요.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설명하는 기술을 쌓기 위해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12년간 칼럼을 연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일대 일상담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까지 개설했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co.kr’ 도메인까지 도입했을 정도다.

망막 분야 최고 권위자

이 부원장은 황반변성과 망막박리 같은 망막질환에 정통한 안과 전문가다. 요즘은 백내장수술의 노하우를 쌓기 위해 망막 쪽에 지원하는 전공의가 많지만 이 부원장이 수련할 때만 해도 망막은 좀처럼 도전하지 않은 어려운 분야였다. 각막은 재수술의 기회가 있지만 망막은 실패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실명의 위험이 있다. 백내장수술이 맹장수술이라면 망막수술은 대장수술에 비견될 만큼 힘든 수술이다. 망막질환 중 특히, 황반변성은 난치 영역이어서 전문의가 부족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황반변성 환자는 갑자기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고 문장의 글자 중 보이지 않는 글자가 생기며 밝고 어두운 정도를 구분하는 능력도 점차 떨어지게 된다. 황반변성이 생기는 과정에 대해 이 부원장 특유의 ‘쉬운’ 설명을 들어보자.

“눈을 카메라에 비유하면 눈 속에는 망막이라는 얇은 필름이 벽지처럼 발려 있습니다. 그 중심부에는 갈색소가 진하게 뭉쳐 있는데, 이곳이 사물의 초점이 맺히는 황색 반점이죠. 보는 것을 담당하는 시(視)세포가 있는 곳입니다. 그 아래서 반감지 않은 혈관들이 웅크리고 있다가 서서히 망막을 뚫고 자라나와 출혈을 일으켜 황반부를 망가뜨리는 병이 바로 황반변성입니다.”

황반변성의 합병증은 우울증

황반변성 환자는 점점 시력을 잃기 때문에 불안과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미안함도 환자에게 죄책감을 갖게 한다. “황반변성은 언제 실명할지 모르고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 예측할 수 없어 환자들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어요. 시력은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안과 우울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삼출성 황반변성은 ‘유리체강 내 주사’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해도 시력이 계속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불안감으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국 킬(Keele)대 1차의



료센터의 '황반변성 환자에서 불안과 우울증 유병률' 연구를 보면, 황반변성 발병 후 불안감이 30.1% 증가했고 우울증도 44%나 늘었다. 연세대 간호대학원 연구에서도 황반변성의 평균불안점수는 혈액암이나 갑상선암보다 높았다.

의사의 숙명 앞에서 찾은 소명

8년 전 황반변성 환우회가 이 부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이 부원장도 화답했다. 환자를 위로하고 두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자세한 설명과 용기를 북돋워주는 답변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원장의 의사인생에 전기를 가져온 비극이 일어났다. 실명의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이어가던 한 황반변성 환자가 불안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것이다. 그때 비로소 알았다. 실명은 시력을 잃는 것 이상으로 끔찍한 일임을. 어떤 환자에겐 시력이 목숨 같은 것임을. 이 부원장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분명히 다른 환자들한테 그랬던 것처럼 용기를 갖고 잘 치료해 보자고 했었다.

“수술하면 나올 수 있으니 함께 최선을 다해 보자”는 말 대신 “100% 완치될 수 있다”고 말했어야 했나? 나의 장담이 만에 하나라도 실패할 경우 환자와 그 가족의 원망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내가 속한 병원의 입장과 법적 책임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100% 완치를 확신해도 환자와 가족에게 “확신한다”고 말할 수 없고, 단 1%의 가능성만 보여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의사다. 환자의 희망과 치료의 현실

사이에서 의사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의사의 숙명이기도 하다. 이 부원장은 그 숙명 앞에서 소명을 찾았다. 바로 ‘소통’이었다.

“병은 모르는 만큼 두렵다”

“모르는 게 약이고, 아는 것이 병”이라지만, 이 부원장은 병은 잘 알아야 걸리지 않고 제대로 알아야 고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보이는 만큼만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보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지요. 알아야 고칠 수 있고 모르면 두려움만 커져 고칠 수 있는 병도 못 고친 채 마음의 병까지 키우게 되고 맙니다. 의사만 병을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도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이 부원장의 말처럼 안과에 들어맞는 말도 없을 것이다.

환자와 핫라인을 구축하다

일단 진료를 시작해 인연을 맺은 환자는 언제든지 이 부원장과 연결되고 만날 수 있다. 이 부원장은 자신이 치료한 환자라면 누구든 이메일주소는 물론이고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려주며 조금이라도 병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증상이 악화돼 걱정이 되면 낮이든 밤이든 망설이지 말고 연락하라고 주문한다. 대학병원이라 전문의를 다시 만나는 절차가 까다로울 거라 생각했던 환자들은 이런 ‘핫라인(hotline)’을 개통한 것만으로도 안심이 된다. 망막박리수술도 이 부원장에게는 응급이다. 늦어도 24시간 내 수술이 원칙이다. 당장 생명이 위급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서둘 이유가 있을까 싶지만 이 부원장의 생각은 다르다. “눈을 뜨고 있는데 검은 커튼이 서서히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야말로 ‘암담한’ 상황이죠. 그런 환자의 공포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원장은 한밤중에도 수술을 집도하는 게 다반사가 됐다.

‘해바라기’ 의사의 ‘해바라기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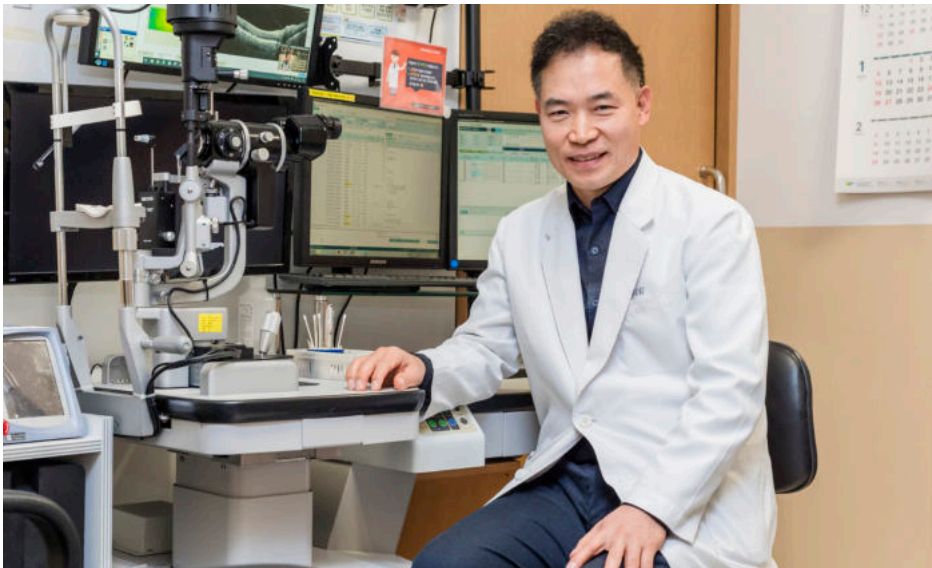
이 부원장은 노래는 물론이고 색소폰 연주 실력도 결혼식장에서 축하연주를 할 정도로 수준급이다. 이 부원장이 콘서트를 통해 황반변성 환자들과 소통하겠다고 맘먹는데 이런 음악적 소양도 한몫했다. 2014년 황반변성 예방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해바라기콘서트’를 처음 열었다. 한국실명재단이 후원하고 썬플라워캠페인 운동본부가 주관했다. 콘서트명의 ‘해바라기’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황반, 즉 노란 점들이 박힌 망막의 모습이 흡사 해바라기 같기도 하고, 황반변성 환자들이 해바라기처럼 ‘희망의 태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도 있다.

“황반변성은 노인성 실명 원인의 대표 질환으로 한 해 15만 명 넘게 환자가 발생하는 데 그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황반변성으로 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잔혹한 현실 속에서 황반변성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명하는 환자의 증가를 막고자 콘서트를 시작했어요.” 한두 곳에서 후원을 받긴 했지만 작지 않은 규모의 콘서트를 열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모자랐다. 이 부원장은 사비를 털고 옛 지도교수였던 은사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은사는 환자와 소통하려는 제자의 열정에 감복해 선뜻 거금을 건네주었다. 유명 가수들도 콘서트 취지에 공감해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해바라기콘서트는 기대 이상이였다. 700여 명의 황반변성 환우가 참석해 서로 아픔과 고통을 공유하고 함께 투병의 의지를 북돋워 주었다. 이 부원장을 구심점으로 ‘황반변성은 막연히 두려운 병이 아니라 함께 공부하고 싸워나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병’이라는 가능성을 연 것만으로도 첫 콘서트는 대성공이었다.

“궁금증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가봅시다”

2016년 열린 두 번째 해바라기콘서트에서는 환우들과 ‘끝장토론’을 벌였다.

“녹초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환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콘서트에서도 황반변성 환우와 후원인 500여 명을 비롯해 안과의료진, 유명인 등이 대거 참여했다. 누네안과병원 권오웅, 한양대 구리병원 조희운, 고대 안산병원 김성우, 대구 누네안과 문다루치 등 안과 전문의들이 ‘황반변성’을 주제로 열띤 대화를 진행했다. 가수 신



효범, 성악가 유성녀, 뮤지컬배우 박세욱, 바이올리니스트 백진주, ‘여행스케치’ 남준봉, 아이돌 보이그룹 ‘하이포’, 아이돌 걸그룹 ‘스쿨버스’ 등이 참여하는 힐링콘서트도 이어졌다.

망막박리수술 1,000번의 기적

2018년 6월, 순천향대 서울병원 안과는 망막박리수술 1,000례 기념 강좌를 개최했다. 당시 이 부원장의 망막수술 스승인 세브란스 교수 출신의 권오웅 누네안과 병원장은 “이성진 교수를 보면 처음 망막수술을 했을 때가 생각 난다”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 망막박리수술 1,000례라는 큰 업적을 이뤘다. 한 사람이라도 더 잘 보게 하기 위한 노력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격려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1991년 온영훈 교수가 처음 망막진료를 시행한 이래 2001년부터 이 부원장이 24시간 내 응급 망막박리수술을 시작해 연간 30~40건을 집도해 왔다. 2010년부터는 연간 100건 이상의 수술을 하고 1주일에 두 번은 야간 응급수술도 이뤄진다. 망막클리닉은 현재 원스톱(One-stop)·온콜(On-call) 시스템을 갖추고 24시간 응급수술을 시행한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망막진료를 시작해 젊은 직장인 환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인근 약국과 협의해 이른 시간에도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병원 차원에서 망막진료와 망막박리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부원장은 밤 늦은 퇴근과 새벽 출근을 마다하지 않는다.

시공을 초월해 소통하는 명의

진료부원장은 올해 1월 2일부터 승진한 자리다. 누구보다 환자와 소통하는 이 부원장의 열정이 의료진 전체에 귀감이 될 것을 기대한 인사였으리라. 이 부원장은 베트남 꾸이년에 백내장수술센터를 건립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네팔 등지로 매년 의료봉사도 다녀온다. 천 년 전 고전 속 인물을 진단하고 멀리 해외 환자들까지 돌보는, 그야말로 시공(時空)을 초월해 소통할 수 있는 통의(通醫), 그가 바로 진정한 명의(名醫)가 아닐까. 이 부원장은 인터뷰 중 위급한 환자의 호출을 받고 즉시 자리를 떠났다. 남은 인터뷰는 전화로 하자 했지만 그는 끝내 전화를 하지 않았다. 환자와 소통하느라 인터뷰기사가 어떻게 나오지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아프니까 환자이고 바쁘니까 의사다”는 이 부원장을 두고 하는 말인 모양이다. 그를 다시 만나려면 이미 노안이 온 기자의 눈이 더 나빠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환자는 언제든지 만나줄 테니. 올해 제3차 해바라기콘서트가 열린다고 하니 그곳에 가도 이 부원장을 만나볼 수 있으리라. 



다학제 진료 통해 ‘고도비만·대사수술’ 전후 만족도 최고

순천향대 부천병원 슬림메디센터, 비만 통합관리 프로그램 운영

통계청이 조사한 2017년 기준 비만 유병률(체질량지수(kg/m²)기준으로 25이상인 분율, 만19세 이상)은 남녀 평균 3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 3명 중 1명꼴로 비만 위험성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비만이 만연돼 있다는 내용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 고도 비만 인구는 2030년이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국민 정서상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서구화된 식습관, 활동량 부족 등 비만율은 높아지는 추세지만 막연하게 호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개선 또는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만을 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노력이 최근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단순히 의료적 치료뿐만 아니라 상담, 관리 등을 통해 지속적 개선을 이뤄내는 것으로 비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와 함께 호평을 받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슬림메디케어센터 역시 이러한 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슬림메디센터는 지난 2019년 4월 센터 명을 기존 '슬림메디케어센터'에서 변경하고 의료진과 진료 시스템을 재정비했다. 고도비만·대사수술 전후로 전문 의료진이 다학제진료를 통해 '안전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슬림메디센터에서는 단순한 체중 감량에 중점을 두지 않고, 위장관외과, 가정의학과, 내분비내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양팀, 정신건강의학과 등 10여개의 전문과가 참여한다. 다학제 진료(One-stop)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치료를 진행 후,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학제 통해 환자 상태 따라

원스톱 대응 가능

다학제의 장점에 대해 조인 교수는 “환자들이 전문의를 직접 찾아가는 수고스러움을 덜어줌과 동시에 하나의 공간에서 진료나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집중도가 높다”며 “전문의들 역시 환자의 상태를 공유하기 수월해 적절한 진단과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당뇨병, 수면무호흡증 등 환자의 동반 질환 상태에 따라 관련 진료과 의료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며, 환자도 여러 진료과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기본적으로 슬림메디센터를 찾는 사람들은 수술 요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운동이나 식이요법 등 단순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비만 환자들에게 위절제술 등으로 1차적인 치료가 이뤄지고 이후 다학제진료를 통해 지속적인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조인 외과 교수



“다학제 통해 환자들에 최상의 결과 도출 노력”

“순천향대 부천병원 슬림메디센터가 출범한지 오래되지 않아 물음표를 가진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비만을 비롯해 관련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이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들이 모아져 환자들의 고민을 충분히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조인 교수는 슬림메디센터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전공과인 외과 소속이다. 고도비만 환자들에게 수술요법 등이 결정됐을 때 직접 집도에 나선다. 그는 슬림메디센터 구성원들의 장점에 대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을 상대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단순히 순천향대 병원에서의 경력이라 아니라 타 대형병원에서부터 이어져온 경험을 강조한다. 조 교수 역시도 세브란스병원에서 비만케어를 담당했고, 대한비만학회 활동을 통해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비만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부터 당뇨,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등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적절한 진단과 함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병입니다.”

조인 교수는 수술 요법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조금은 느그러워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용어 자체에서 느껴지는 위압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내과학회에서는 비용대비 효과를 놓고 볼 때 수술요법이 더 낫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또, 수술 후 당뇨와 고혈압 등의 질

한도 수술 요법 후 개선된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단순히 살을 빼는 수술이 아닌 '살기 위한 수술'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조인 교수는 비만을 단순히 '살이 찼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강조한다. 초기 치료시기를 놓치면 단순 치료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비만'이라고 강조한다. 슬림메디센터에 대해 조 교수는 시스템이 갖춰져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곳이라고 자랑한다.

환자가 처음 찾아 코디네이터를 만나는 순간부터 다학제로 관리를 받는 과정까지 '원팀'이 되어 움직인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다학제의 장점에 대해 조 교수는 “한 명의 환자를 만나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최상의 방법을 찾고자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환자에게 신뢰를 쌓아감과 동시에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고도비만의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센터를 부담없이 찾아줄 것을 권유했다. “이제 사회적으로도 비만이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없는 일이 아닌 하나의 질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혼자 의기소침해져 있는 것보다는 우리 센터를 통해 생활의 자신감을 다시 찾기를 기원합니다.”



“고도비만이란 단순히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 몸에 과량의 지방이 축적되면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고도비만 환자 대부분 고혈압, 무호흡증 등 만성질환 동반

따라서 대상자 역시 고도비만 환자들이 주를 이룬다. 고도비만이란 단순히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 몸에 과량의 지방이 축적되면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비만은 체질량 지수를 통해 구분해 35이상을 고도 비만이라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체질량지수 35이상인 고도 비만 환자는 대부분 고혈압, 당뇨, 천식, 지방간, 당남질환, 관절질환, 무호흡증 질환 등 만성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환자들은 개개의 전문가들이 개별적으로 치료하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센터에서는 수술 후 환자분의 체질량지수 체크를 통해 필요한 운동 치료,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담당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 맞춤 행동치료 및 약물치료도 함께 이뤄진다.



“환자의 세세한 변화까지도 관리한다”

“과다체중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사증후군, 당뇨, 고지혈증, 혈압 등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슬림메디센터에서 가정의학과가 담당하는 것은 무엇보다 수술 전 후 영양섭취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재형 교수는 슬림메디센터에서 환자의 세세한 점을 살피는 살림꾼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환자의 수술 전과 후 영양섭취 관리부터 환자의 변화까지 모니터링 하는 등 장기간 체크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초기에 체중 감량 효과가 크더라도 다시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식습관 교육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환자와의 상담이 많은 편입니다.”

임재형 교수는 체험형(?) 전문의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한다. 환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위해 식욕억제제를 직접 먹어보기도 했다.

“비만 환자들의 상당수가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사회적 분위기에 위축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정도가 심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는 비만환자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폭식, 음주 등 체중관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로 이어지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임 교수는 숨어있는 것보다는 자신 있게 센터를 찾아줄 것을 권하고 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기에 일단 나와서 상담부터 받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자신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비만으로 파생되고 있는 몸의 이상 등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단순히 병원에 간다는 생각보다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 속에서 조금 더 나은 생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재형 가정의학과 교수

지난해 1월부터 비만환자 건강보험 적용

고도비만·대사수술은 복강경을 통해 위소매 절제술, 루와이 위우회술 등을 시행하며, 지난해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수술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체질량지수(BMI) 35kg/m² 이상이거나, 체질량지수(BMI)가 30kg/m² 이상이면서 고혈압·수면무호흡증·관절질환·위식도역류·제2형 당뇨·고지혈증·천식 등 대사 관련 합병증을 한 가지 이상 동반한 경우다.

조규석 순천향대 부천병원 슬림메디센터장은 “수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체중 감소 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대사증후군이 동시에 호전되는 결과를 보여 ‘비만·대사수술(bariatric-metabolic surgery)’이라고 부른다. 고도비만은 우울증 등 정신적인 고통과 여러 합병증을 함께 앓는 경우가 많아 수술 전후로 여러 진료과 교수가 긴밀하게 협진하는 다학제 진료가 효과적이다. 또, 수술 후에는 환자 스스로 식이를 조절하고, 적당한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 등이 필요해 1:1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가 ‘슬림메디센터’로 새 출발한 만큼, 여러 합병증으로 고통 겪고 있는 고도비만 환자들의 체중 감소 및 건강 회복을 위해 모든 의료진이 연구와 수술, 진료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성형외과는 또 하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곳”

“고도비만을 겪다 수술 요법 등을 통해 개선을 이룬다해도 과거 살이 찘을 때의 흔적과 수술 과정에서 있을 흉은 남아 있기 마련입니다. 성형외과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을 케어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은수 교수는 슬림메디센터에서 성형외과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 환자들의 심미적 활동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다.

“복강경 수술을 하더라도 흉이 딱딱하게 생깁니다. 또 슬림메디센터에서 관리를 받은 후 1년 정도가 경과하면 살이 빠진 복부 등이 처지는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 이러한 흉들이 자신감 결여 등 불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박 교수는 일반적으로 수술한 환자들의 70~80%는 성형을 통해 흉터나 흔적을 지우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고, 실제 40~50%는 성형수술을 진행한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환자들에게 수술을 종용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과를 안내하는 정도입니다. 자칫 성형을 종용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의 결과가 양호한 편이고 환자들 역시 만족해 한다는 점입니다.”

슬림메디센터에 대해 박 교수는 삶의 시너지를 날게 하는 곳이라고 설명한다.

“몸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사람이 수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인위적인 부분이 가미되기는 하지만 살을 빼고 관리를 해줌으로써 삶의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는 곳이 바로 슬림메디센터입니다.”



박은수 성형외과 교수



서려경

복싱하는 '여'의사 챔피언을 꿈꾸다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서려경 전공의

의대에 합격하면 100점, 수련의 과정을 거치면 200점. 프로복서(boxer)가 100점이라면 여자 프로복서는 200점을 줄 수 있다. 이런 배경이면 서려경 전공의는 일단 400점짜리다. 여기에 미모와 겸손까지 겸비했으니 600점이다. 올해 프로데뷔전에서 승리하고 내년엔 전문의가 되면 800점짜리 인재로 업그레이드된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런 점수는 숫자에 불과하다. 승부보다는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녀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다. 무하마드 알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녀에게도 "불가능은 사실이 아니다. 단지 의견일 뿐이다."

글 이승우 사진 임상혁

1월 18일 전주시 그랜드힐스턴호텔 그랜드벨라에서 한 여자 복서의 프로데뷔전이 열렸다. 격투기 세계에 여자 파이터도 적지 않고 일반 여성들도 다이어트를 위해 복싱체육관을 찾는 요즘, 여자 복서의 프로데뷔전이 큰 이슈는 아니다. 하지만 그 여자 복서가 미모의 대학병원 전공의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링에 오르는 프로복서는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서려경(28) 전공의(3년차)다. 이번 데뷔전에서 무하마드 알리같이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지'는 못할지라도 그녀가 나비 같은 외모임은 틀림없다. 허스키(husky)한 목소리와 쿨(cool)한 말투를 듣기 전 첫인상은 천상 가냘프고 어여쁜, 그야말로 '여자여자한' 아가씨다. 체급도 가벼워서(light) 날아갈(fly) 듯 한 라이트플라이급 이다. 어릴 때부터 좀처럼 살이 안찌는 체질인데다 복싱을 하고부터는 되레 체중이 더 떨어질까 걱정일 정도다. 바로 아래 미니멈(minimum)급이 마지노선이다.

취미에서 특기로, 프로 라이선스까지 획득

그녀는 전주에서 태어나고 자라 전북여고를 나와 순천향대 의대에 진학한 이래 10년간 의사공부를 했다. 혹독한 수련의 과정을 거치고 의사로 데뷔하려는 시점이지만 그녀에겐 올해 있을 전문의 시험보다 프로복서 데뷔전이 더 설레는 무대다. 운동을 좋아하는 편인데 전공의 수련 중에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지 않아 비번 때 주로 피트니스센터를 다녔다. 그러던 중 2018년 가을, 병원 근처 복싱체육관에 다니는 의대 선배이기도 한 마취통증의학과 강진구 전문의가 그녀의 소질을 알아보고 강력 추천해 복싱을 시작하게 됐다. 이후 매주 세 차례 정도 복싱체육관에 가서 서너 시간 연습했는데 어느덧 취미가 특기가 되더니 급기야 프로 라이선스까지 받게 됐다.



쿠버다이빙에도 도전했다. 하지만 복싱을 하고 프로 복서가 될 거라고는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다.

"운동과 제 일인 의료가 직접 연관된 점은 없지만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제대로 운동을 한 가지 선택하자 맘먹었는데 우연히 추천받은 복싱에 끝난 거죠. 복싱은 전신운동이 되고 특히 체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싱을 시작한 후에는 신체능력이 좋아져 병원에서 공부하고 근무할 때도 몸이 가벼워지고요." 그녀는 어릴 때부터 '수재'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노력형'이라며 억울해 한다.

"차라리 '노력천재'라고 하는 게 맞아요. 노력하는 데는 확실히 타고난 소질이 있으니까요.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수재들도 있다던데 저는 솔직히 어려웠어요. 오히려 최선을 다하는 게 쉬웠는지는 몰라도요." 그녀는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그래서 공부는 골레가 됐고 1등은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고지가 되었다. 좋아하는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없는 아쉬움보다 친구가 자신보다 몇 문제 더 맞는 걸 견디지 못했다. 인젠가 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공부벌레가 되어 있었다. 시쳇말로 '본조장'(분노조절장애)까진 아니라도 화를 다스리지 못해 힘들었던 건 사실이다. 쌓인 화를 억누르며 의대에 합격하고 수련해야 했다. 점수와 싸우고 자신과 전쟁을 치르는 동안 승부욕이 무서울 정도로 커진 자신을 발견했다. 각성이 필요한 그때 운명처럼 복싱을 만났다.

눈앞의 상대와 승부, 단순하지만 명쾌한 도전

복싱을 시작하면서 그녀는 승부욕보다 중요한 것이 도전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 상대와 싸워왔던 것 같아요. 성적, 시험, 의대, 전공의 등등. 나 자신과도 싸웠다고 하지만 그것도 눈앞에 보이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더 막막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복싱은 달랐다. 상대가 눈앞에 분명하게 있고 링이라는 사각의 공간에서 잡념 없이 경기에 집중해 공격하고 방어해야 했다. 원시적이지만 현실적이고, 단순하지만 명료했다.

"승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승자든 패자든 눈을 뜨고 함께 겨룬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이번 프로 데뷔전에 임하는 자세도 담담하다.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해요. 결과는 경기하기 전까지 알 수 없겠지만 후회 없는 경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요. 복싱이야말로 저 같은 노력천재에 딱 맞는 종목 같아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쳐 맛기 전까지" 자만으로 가득 찬 마이크 타이스의 명언도 그가 말년에 상대선수의 귀를 물어뜯은 후에는 바뀔 법하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귀를 물어뜯기기 전까지" 승부에 집착한 복서의 말로를 보면, 그녀의 "승부보다는 경기 그 자체에 집중한다"는 복싱관이 타이슨보다 한 수 위다. 그녀는 타이슨의 명언을 이렇게 패러디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복싱을 배우기 전까지" 복서가 됐으니 이제 계획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이다.

"일단은 전공의 수련이 끝나고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고 나서 의사는 당분간 쉬며 복싱에 전념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녀가 챔피언이 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도 명성을 얻는다면 그녀를 만날 아이들도 행복해질 것 같다. 

"지금까지 경기를 프로테스트 한 번만 해봤는데, 당시 상대선수 오지 않아 속상했어요. 다행히 그날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러 온 선수가 상대해 주어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체육관에 여자 복서가 없어 그녀는 늘 남자들과 스파링을 해야 했다. 저 체급이라고 해도 체중이 최소 1.5배인 남자 복서를 상대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투지를 요구했다. 보통 4라운드까지 분투하는데 이젠 남자 복서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봐주기 어려운 상대가 되었다.

"어릴 때부터 공부하느라 시간을 낼 수 없어서 그렇지 운동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좋아하면서 도 공부 때문에 많이 못한다 생각하니까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노력천재, 드디어 화 다스리는 법을 찾다

의대에 들어와서도 아주 가끔 틈이 날 때마다 수영도 하고 스

순천향대 중양의료원 새 미션 선포

인간사랑 정신과 의료의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과 가치 실현

서울병원 비전 발표

환자(고객)와 직원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병원, 최상의 진료로 모두의 건강을 약속하는 병원, 혁신적 연구로 미래의 리더가 되는 병원. 순천향대서울병원 (원장 서유성)은 지난 1월 2일 동은대강당에서 2020 신년 시무식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또한 순천향대 서울병원, 부천병원, 천안병원, 구미병원 등 순천향대 중양의료원 산하 4개 병원이 함께 공유하는 미션은 '순천향은 인간사랑 정신과 의료의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현한다'로 선포했다. 순천향의 설립이념인 인간사랑 정신을 기반으로 미래형 진료환경과 연구 환경을 선도하고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MISSION

인간사랑 정신과 의료의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과 가치 실현

서울병원 VISION



행동약속 SCH



지난 1월 2일 동은대강당에서 열린 2020년 시무식에서 비전 선포를 하고있는 서유성 서울병원장 겸 의료원장

순천향대서울병원의 비전은 △환자(고객)와 직원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병원 △최상의 진료로 모두의 건강을 약속하는 병원 △혁신적 연구로 미래의 리더가 되는 병원 등 3가지로 교직원들의 설문을 통해 구체적이고 단순화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약속은 순천향(Soon Chun Hyang)의 영어 이니셜 SCH에서 파생한 안전(Safety), 소통(Communication), 행복(Happiness), 전문성(Specialty), 신뢰(Confidence), 정직(Honesty) 등으로 정했다. 특히 행동약속은 미래를 책임질 젊은 교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앙트레프레너 추구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선포한 서울병원은 업무 집중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과 성과 창출을 위해 경영부원장, 진료부원장제를 도입하고 교육수련부장을 비롯한 각 부장들의 인사도 단행했다. 앞으로 5개년 동안 달성할 수익목표도 명확하게 제시했다. 연간 8% 성장을 통해 2025년에는 월매출 350억의 재무성과를 달성하고, 성장대비 의료비용은 -5%절감해서 의료이익 100억을 달성하는 것이다. 재무적인 지표 뿐 아니라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는 환자의 건강한 삶과 일상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직원의 행복을 위해 워라밸의 조화와 성공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는 자기계발형 업글인간,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앙트레프레너를 추구하는 미래를 열어 나가기로 했다.

서유성 병원장은 신년사에서 "의료는 이제 진료·교육·연구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함께 경제적 이윤 및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유가치창출 전략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미션·비전 구현을 위해 연평균 8% 이상 성장과 순순환 구조를 만들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목표를 실현하는 한 해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총장은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큰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과 같다"며 "맨파워, 복지, 장비, 환자만족도, 치료결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순천향 조직 안에서 믿음과 신뢰, 단결과 화합을 키워간다면 우리의 미션과 비전은 자연스레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전국 2위

순천향대 부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성, ▲효과성, ▲환자 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분야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시행해 발표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진료의 적절성, ▲전담 의사의 전문성, ▲협진 의사 수준, ▲입원실 간호사 인력의 적절성, ▲응급시설 운용의 적절성, ▲응급의료 질 관리 체계의 적절성, ▲중환자실·입원실 운용의 적절성, ▲재난의료지원 인력 구성 및 훈련 등 24개 평가항목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 점수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고압산소치료실



순천향대 부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 응급환자 24시간 전문 진료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선정된 뒤, 응급실 확장 공사 및 장비, 인력 보강을 통해 중증 응급환자를 전문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6년 7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개소했다. 24시간 가동되는 질환별 응급 진료팀과 다학제 협진 시스템은 부천·인천·시흥시 중증 응급환자에게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한 만큼 기존 161명 규모의 응급의료센터도 본관 증축공사를 통해 362명 규모로 확장됐다.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수술실·병동, 음압격리실, 고압산소치료실, 화상치료실 등의 시설을 갖춰, 재난 상황에 따른 대량 환자도 적극 수용할 수 있다.

차별 없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또, 권역 내 공공기관과 하타인을 구축하고, 원격 진료와 헬기 후송 협력 체계를 통해 농어촌 및 도서산간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 소외계층 환자에도 대비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연탄가스 중독사고 환자들을 위한 고압산소치료실은 다른 병원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시설이다.

이 외에도 환자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선별진료소 및 환자 분류소를 운영해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감염병 환자와 응급환자, 중증 응급환자, 소아 응급환자로 분류된 환자들은 센터 내 각각의 진료구역과 격리실로 이동해 진료를 받는다. 최근 부천병원은 메르스, 홍역 등 지역 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감염관리 우수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김기운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부천·인천·시흥시 417만 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고의 응급의료 시설과 장비, 진료시스템을 갖추고, 질환별 응급 진료팀이 최상의 응급 의료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또, 재난거점병원으로서 재난 상황에 따른 대량 응급환자 발생에도 지속적인 모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 대비해왔다. 이러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신웅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할 뿐만 아니라, 의료 취약 환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힘써왔다. 특히 저수가, 운영비 부담 등을 이유로 다른 병원이 운영을 꺼리는 고압산소치료실을 운영해 순천향의 설립이념인 '인간사랑'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도 차별 없는 응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지**

벡사HD 방사선암치료 2만 건 돌파

순천향대 천안병원 방사선암치료센터



천안병원 방사선암치료센터(센터장 여승구)는 최근 최첨단 방사선암치료기인 벡사(Versa)HD의 치료건수가 2만 건을 넘었다. 벡사HD는 4차원 초정밀 방사선암치료기다.

치료건수 2만 건은 도입 후 다양한 암을 치료한 결과다. 폐암 5888건(29.4%)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직장암 3550건(17.7%), 전립선암 3524건(17.6%), 유방암 2523건(12.6%), 자궁경부암 1536건(7.6%), 기타 2979건(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승구 센터장(방사선종양학과 교수)은 “벡사HD는 2017년 12월 교체 도입됐다”면서, “벡사HD의 도입으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결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벡사HD는 타 치료기에 비해 정밀도가 높다. 환자의 호흡 등 미세한 움직임까지 실시간 파악해 정밀하게 치료한다. 치료시간도 짧아 어린 환자나 움직임이 큰 환자들의 치료에 적합하다. 세기조절 방사선치료(IMRT), 영상추적 방사선치료(IGRT), 체부정위 방사선치료(SBRT) 등 다양한 치료법들을 모두 구사한다.

한편 천안병원 방사선암치료센터는 벡사HD 외에도 동급의 노발리스티엑스도 보유해 2대의 초정밀 암치료기와 최신 고주파온열암치료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00여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중부권 최고의 방사선암치료 전문센터다.

‘더블바 오목가슴 교정술’

순천향대 천안병원 이승진 교수 특허의술 몽골에 이식 된다



천안병원 흉부외과 이승진 교수의 특허의술인 ‘더블바 오목가슴 교정술’이 몽골에도 이식된다.

오목가슴 교정술을 배우고 있는 몽골의사는 The Third State Central Hospital of Mongolia 소속 쿠야크(Altankhuyag seseer) 흉부외과 의사. 쿠야크 의사는 12월 3일부터 매주 병원을 방문해 이 교수로부터 교정수술법을 배웠으며, 하루 5건 정도의 교정수술 현장에도 참관해 집중 연수를 받았다. 쿠야크 의사는 “서울 K대병원에서 연수 중 이승진 교수의 명성을 듣고 직접 연락해 연수를 받았다”며, “오목가슴으로 고생하는 몽골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승진 교수가 개발한 ‘더블바 오목가슴 교정술’은 흉부를 누르고 있는 오목가슴을 2개의 금속막대를 넣어 완벽히 복원시키는 수술방법. 움푹 들어간 오목가슴뼈를 안팎으로 압박해 교정하기 때문에 교정 실패확률이 거의 없다. 옆구리에 작은 절개만으로 수술을 마치고 때문에 흉터도 거의 없고, 회복도 매우 빠르다. 20년 넘게 너스벌(가슴뼈를 열지 않는 오목가슴 교정술)을 지속 발전시켜온 이 교수는 2005년(평두시 진입기구)과 2012년(2중 압착-고정장치)를 개발 적용함으로써 안정성과 교정효율을 극대화 시켰다. 학계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오목가슴 교정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연 평균 100건 이상의 오목가슴 수술을 진행한다. 2019년 역시 170명이 넘는 환자들이 이승진표 오목가슴 교정수술로 새 삶을 선물 받았다. ■E+

순천향대 구미병원의 사회봉사

“순천향인에게 사회봉사는 공기와 같은 것”

세상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간다고 해도 병원인에게 사회봉사는 숙명과도 같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업이기에 봉사의 삶은 특권이자 의무이고 때로는 삶 그 자체이기도 하다. 병원의 교직원이라고 의사라고 순천향인이라고 특별 할까? 라고 생각했다면 순천향대 구미병원의 다양한 봉사와 나눔을 들여다보면 특별함을 알 수 있다.



전 교직원 연말 연시 따뜻한 이웃사랑실천

구미병원(병원장 임한혁)은 개원 40주년을 맞이하여 교직원들이 모금한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지난 12월 23일 구미시에 기탁해 재단 설립 이념인 인간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복지기금은 환자 치료비 지원 같은 나눔 문화 기반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2001년부터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통해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 연계가 어려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환자들을 매년 50여명 도와 왔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이웃돕기에 참여하게 되어 더 큰 의미가 있다.



연 2회 연속 '보건의료복지 301 네트워크' 지원사업 대상 병원으로 선정

또한 구미병원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2회 연속 지역에서 유일하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서 후원하는 '보건의료복지 301 네트워크' 지원사업 대상 병원으로 선정되었다.

'보건의료복지 301 네트워크 사업은' 보건, 의료, 복지 3가지 영역을 하나로 통합 지원하게 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주민들에게 의료와 복지 등 관련 기관과 연계 해 의료비, 간병비, 보장구, 이송비 등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 후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미병원에서는 2018년 10월~12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나 지역사회와의 단절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의료비 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 1월~12월 동안 보건, 의료, 복지의 통합적 접근으로 저소득 계층의 건강권뿐만 아니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70여명의 취약계층 환자에게 의료비 일억 원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기존의 현재 의료보장체계나 복잡한 지원 절차, 경직된 행정 처리로 현실적인 요구와 긴급한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유연하고 신속한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보건의료복지 301 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2020년까지 이어질 계획으로 지역 공공기관, 복지 기관 단체에서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순천향구미 햇살아이지원센터'운영

순천향구미 햇살아이지원센터(대표: 김태우 내과계 부장)는 2007년에 구미병원 교직원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부모로부터 소외된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발굴하여 보이지 않는 폭력, 잘 드러나지 않는 정서학대와 방임의 심각성에 관심을 갖고 통합적 아동보호체계를 운영 중인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햇살아이지원센터는 정부 지원금 없이 구미병원 교직원과 뜻을 함께 하는 후원자 250여명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이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는 신념으로 위기·취약계층 아동에게 ONE-STOP 통합지원체제로 언어치료,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지원, 찾아가는 가정방문, 지역사회 연계 및 안전망을 구축 등을 통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총 320명, 2,457건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햇살아이지원센터는 누구나 손쉽게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기부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설립 초창기부터 이사로 활동하는 김형규 변호사는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 선 공로로 대한변호사회 주최 우수변호사상,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앞장서서 취약아동과 가정을 돕고 있는 센터 이사회장인 서임교 (주)SL테크 대표 또한 구미공단 발전과 기부확산의 유공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그 밖에 지역 내 삼성전자 사회공헌팀에서도 임직원의 나눔로드를 통한 기부로 여러 차례 아동에게 필요한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한혁 병원장은 “우리병원은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료봉사단, 햇살아이지원센터, 호스피스운동,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등 재단 설립 이념인 인간사랑을 적극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봉사와 나눔 문화 정착을 통해 더욱 풍성한 결실을 이루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햇살아이지원센터 활동





젊은 유방암 생존자, 심부전 위험 높다

이지현 순천향대서울병원 유방센터 교수 발표

젊은 유방암 생존자는 같은 연령대에 비해 후기 심부전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현 순천향대서울병원 유방센터 교수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유방암학회와 공동으로 유방암 생존자와 무병 대조군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했다.

이교수팀은 2007년부터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연령, 성별, 자격연도를 매칭해 후기에 발생하는 심부전 빈도와 관련 요인을 분석했다. 초기 치료와 연관한 합병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진단 후 2년이 지난 시점의 심부전 발생빈도를 관찰했다.

관찰 결과, 무병 대조군보다 유방암 생존자군의 후기 심부전 발생 위험이 1.4배 높은 결과를 보였다. 특히 50세 미만의 젊은 유방암 생존자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2.9배나 높은 빈도를 보였다.

고령이 심부전 위험 요인임을 고려했을 때는 고령에서의 심부전 빈도가 젊은 연령보다 높지만, 고령 유방암 생존자의 심부전 발생은 대조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방암 치료에 흔히 쓰이는 탁산제, 안트라사이클린계 항암요법을 받은 경우에도 심부전 발생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이지현 교수는 “심부전은 주로 유방암 치료 초기에 생기는데, 장기 생존자들의 후기 합병증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아 관심을 갖게 되었다.”며 “젊은 유방암 생존자들의 후기 심부전 발생이 유의하게 높기 때문에 특히, 항암치료를 받은 젊은 유방암 생존자들은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무병 대조군보다 유방암 생존자군의 후기 심부전 발생 위험이 1.4배 높은 결과를 보였다. 특히 50세 미만의 젊은 유방암 생존자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2.9배나 높은 빈도를 보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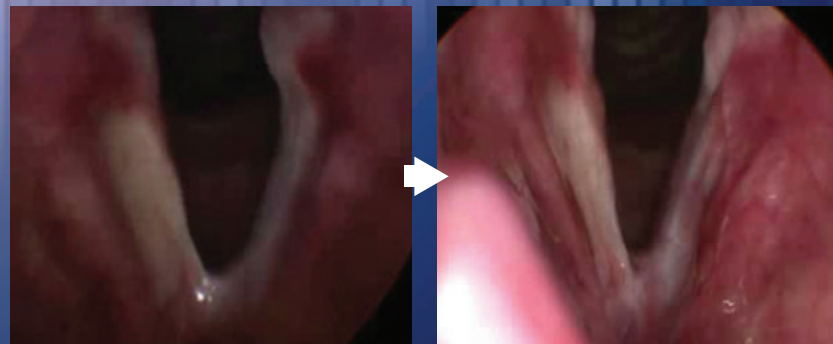


이 연구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한 유방암 생존자의 후기 심부전 발생 위험도 조사(Long-term risk of congestive heart failure in younger breast cancer survivors: A nationwide study by the SMARTSHIP group)'이란 제목으로 (Cancer. 2019 Aug 27)에 게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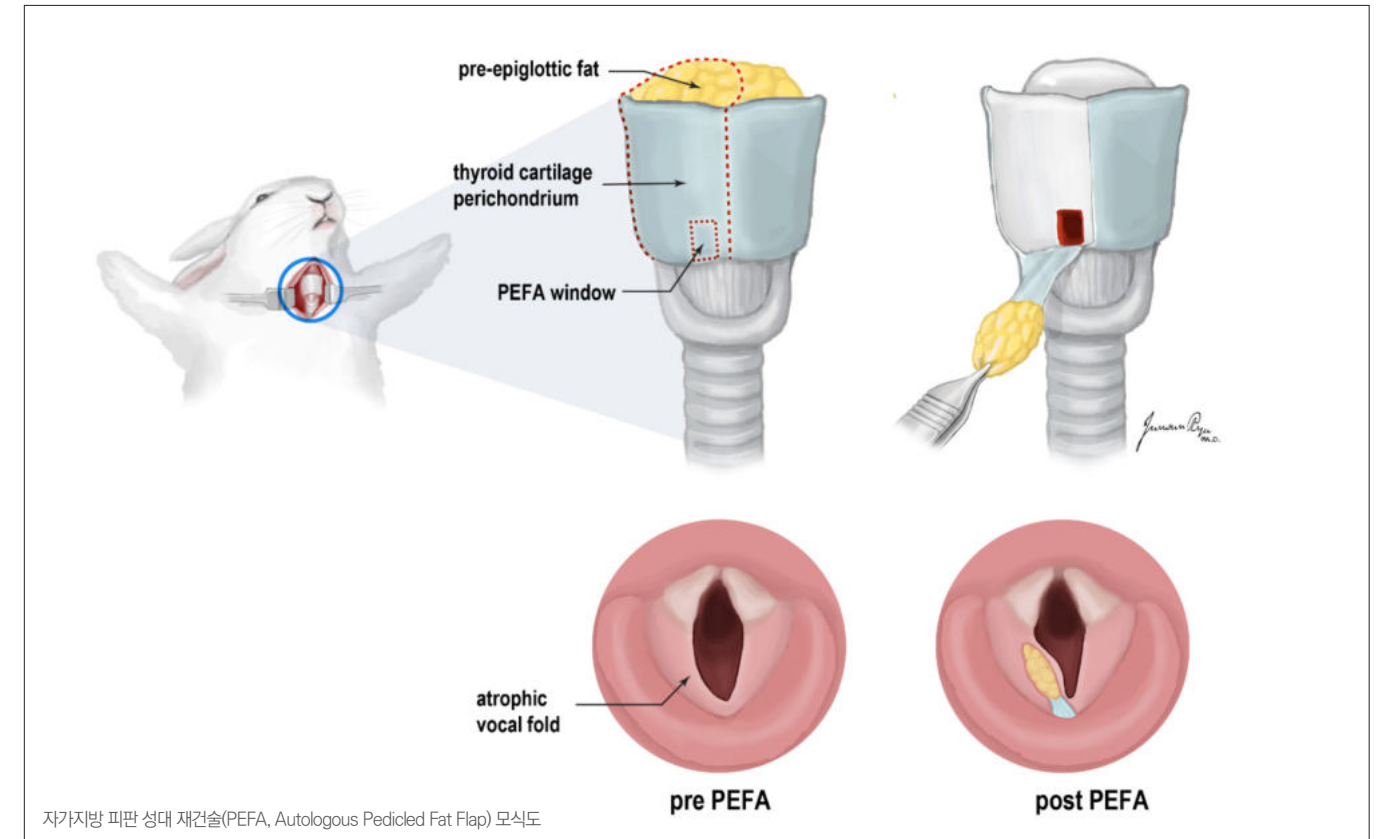


이지현 교수
순천향대 서울병원 외과

후두암 수술로 손상된 목소리 재생하는 '자가지방 성대 재건술' 개발



후두암 성대절제술 후 손상된 환자의 성대(좌), 자가지방 피판 성대재건술 후(우)



자가지방 피판 성대 재건술(PEFA, Autologous Pedicled Fat Flap) 모식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이승원 교수가 성대 절제술 후 난치성 음성 장애를 치료하는 '자가지방 성대 재건 수술법'을 개발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후두암으로 성대 절제술을 받은 환자나, 고령에 성대 위축으로 인한 음성 장애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그동안 음성 장애는 환자의 사회·직업 활동을 어렵게 하여 큰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었으나 마땅한 치료법이 없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승원 교수는 30마리 성대 마비 토끼 모델에서 '자가지방 피판 성대 재건술(PEFA, Autologous Pedicled Fat Flap)'을 시행하여 성대재건술의 유효성을 검증했다. 그 결과, 자가지방 피판 성대 재건술을 받은 성대가 손상된 성대에 비해 조직학적으로 성대의 반흔이 적고, 성대 크기가 유지됐다. 또, 초고속 성대 진동촬영 검사를 통해 성대의 진동이 의미 있게 호전됨을 확인했다.

이승원 교수는 "자가지방 피판 성대 재건술은 자가 조직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수술법에 비해 이물 반응이 없고, 이식물의 흡수가 적으며 성대 진동이 좋은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치료가 불가능했던 후두암으로 인한 음성 손상, 노인성 성대 위축으로 인한 음성 장애, 성대 수술 후 성대 손상으로 인한 난치성 음성 장애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연구 성과를 밝혔다.

이승원 교수의 자가지방 피판 성대 재건술은 지난해 4월 미국 이비인후과 종합학술대회에서 최초로 구연 보고됐고, 지난해 11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비인후과 영문 학술지 '후두경(Laryngoscope, SCI IF 2.442)'에 게재되어 그 우수성을 입증했다. 한편, 이승원 교수는 현재 부천병원에서 음성 수술, 갑상선암, 기도협착, 두경부암 등을 전문 진료하고 있으며,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연구이사, 교과서 편찬위원회 간사, 간행이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총무이사를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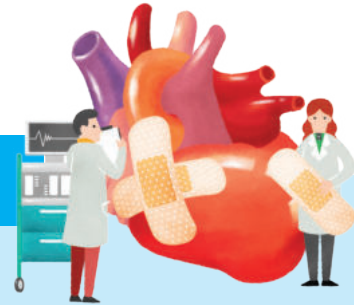
또, 2013년 미국 후두음성학회 '젊은 교수상', 2016년 미국 음성재단 '최우수 논문상' 등을 수상했으며, 세계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다년간 등재될 정도로 음성 수술 관련 전문가로 꼽힌다. 

이승원 교수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노년층에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 질환

‘노인 고혈압’ 치료하면 뇌졸중, 심장발작 줄어든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고혈압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높다. 하지만 고혈압을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으로 인식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직도 노인 고혈압 환자 중 적절히 조절되는 경우는 50% 정도로 낮은 편이다.

혈관탄력 낮아지고 혈류속도 빨라지고

노인 고혈압 환자의 50% 이상이 수축기 고혈압이다. 수축기 고혈압은 수축기혈압 $\geq 140\text{mmHg}$ 이상, 확장기 혈압 $<90\text{mmHg}$ 미만일 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수축기혈압(심장 수축기의 높은 혈압)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완기혈압(심장 확장기의 낮은 혈압)은 60세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한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동맥벽의 탄력성이 낮아지고 강직성이 높아져 혈류 전달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즉, 수축기 고혈압과 맥압(수축기 · 이완기혈압 간 차이)의 증가가 노인 고혈압의 특징이다.

치료해야 심뇌혈관질환 위험 낮춘다

심뇌혈관질환은 노년층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질환이며, 주요 사망원인으로 손꼽힌다. 노인 고혈압의 치료는 심뇌혈관질환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줄인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또한 뇌졸중, 심장발작, 심부전의 발생률 감소를 위한 고혈압 치료는 수축기 고혈압 환자에게도 효과적인 것이 입증됐다.

항고혈압제 치료는 노인에게 더욱 효과적이다.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아 발생하는 합병증의 위험도는 젊은 층보다 노년층에서 더 높다. 그 예로 1건의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하여 98명의 젊은 고혈압 환자를 치료해야 하지만, 노인 고혈압 환자는 단지 39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와 비슷하게 1건의 관상동맥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젊은 환자 187명을 치료해야 하는 반면 노인환자는 단지 77명의 환자 치료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140/90mmHg 미만으로

노인 고혈압 환자의 목표혈압은 젊은 층과 마찬가지로 140/90mmHg 미만이다. 하지만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만큼 혈압을 낮추는 것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되도록 이완기혈압이 60mmHg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게 조절해야 한다. 특히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나 쇠약한 노인은 수축기혈압의 목표를 약 150mmHg로 다소 높게 권한다. 노인이 처음 약을 복용하는 경우 일반 성인의 절반 용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목표혈압에 도달할 때까지 합병증 발생 여부를 관찰하면서 서서히 증량하는 것이 안전하다.

항고혈압제 장기복용해도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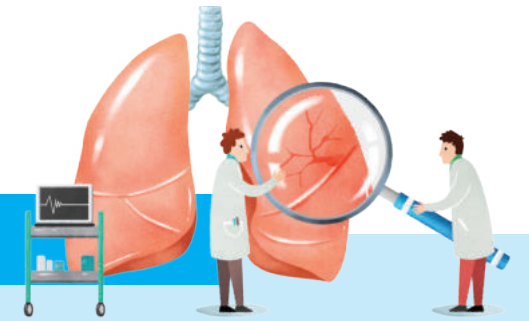
약물치료를 권유 받은 노년층에서 운동, 대체요법, 민간요법을 찾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지속적이고 적절한 운동 및 식습관은 약물효과를 높이지만 약물치료보다 효과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방법은 없다. 민간요법 등은 치료를 방해하거나 합병증을 배가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건강한 식생활 습관과 함께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항고혈압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위나 콩팥이 나빠진다는 막연한 오해를 갖는 경우를 자주 본다. 물론 노인 고혈압 치료 시 기립성 저혈압이나 기저질환의 악화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부작용은 초기에 발견되므로 장기복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는 불필요하다.

노인 고혈압은 흔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다. 앞으로 노인 고혈압 환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합병증과 사망위험이 높아지면 개인의 불행은 물론 사회적인 의료비 부담도 커질 것이다. 노인 고혈압이 제때 진단되고 적절히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환자, 가족, 의사, 사회 모두 노력해야 한다.

이세환 교수
순천향대 천안병원 심장내과



폐암보다 사망률 높은 ‘노인성 폐렴’



폐렴으로 사망하는 환자 수가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폐렴은 2017년 사망원인 4위로 10년 전보다 사망률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암 사망률 1위인 폐암보다 사망률이 높다. 특히 65세 이상 환자에서 발생하는 노인성 폐렴은 더욱 위험하다. 65세 이상은 65세 미만보다 폐렴 사망률이 70배가 높다.

감기 오인 치료시기 놓쳐

폐렴 초기에는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성 폐렴 환자는 발열 68%, 누런 가래 53%, 몸살 45%로 증상이 나타났다. 이외에도 의식변화, 두통 등이 있다. 하지만 노인은 증상 유무로 폐렴 발생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신체 온도가 낮고, 온도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열이 없는 등 증상이 없거나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신 무기력증, 기저질환 악화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폐렴에 노인 취약한 이유

폐 기능과 면역력이 약한 노인은 폐렴에 더욱 취약하다. 우리 몸은 세균 등 유해물질이 폐에 들어오면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반사작용으로 기침을 하고 가래를 만든다. 하지만 노인은 노화로 인해 폐와 기관지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기침이 잘 나오지 않고, 가래를 뱉기 어렵다. 이로 인해 폐에 폐렴을 일으키는 이물질이 잔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폐렴구균이 폐렴 일으켜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균인 폐렴구균은 일반인에게서 흔하게 발견된다. 건강한 성인은 몸에 폐렴구균이 있어도 폐렴에 잘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노인은 다르다. 면역력이 약해진 노인은 폐렴구균에 감염되면 폐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환 동반되는 경우도 많아

폐렴을 진단하기 위해 흉부 방사선검사, 객담검사, 혈액검사, 동맥혈

가스검사 등을 시행한다. 폐종양, 폐색전증, 폐결핵, 심부전 등의 심각한 질환들이 단순 폐렴으로 오인되거나 폐렴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항생제 치료, 호전속도 더뎌

폐렴은 기본적으로 폐렴구균과 비정형균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고, 증상 정도와 기관지확장증,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최근 항생제 또는 스테로이드 치료 유무에 따라 항생제가 달리 선택된다. 노인환자는 젊은 환자보다 호전되는 속도가 느리다. 특히 심부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는 경우 치료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매년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

폐렴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접종이다. 특히 노인은 독감에서 폐렴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독감과 폐렴구균 백신 모두 접종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독감 백신은 폐렴 등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입원율과 사망률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달걀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독감 예방접종은 피해야 하고,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년 재접종을 받아야 한다.

백신접종이 완전히 폐렴을 예방할 순 없다. 일상생활에서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서 세균 감염을 막고, 금연 및 균형 잡힌 영양 공급으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호성 교수
순천향대 천안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다낭난소증후군 치료 법

체중 감량과 복합경구피임제 복용 효과적



산부인과 진료를 하다 보면 젊은 여성들이 몇 개월 째 월경을 안 하거나 월경이 너무 드물다고 많이 찾아온다. 이런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 다낭난소증후군을 의심하게 된다.

다낭난소증후군의 여성들은 무월경과 더불어 몸에 남성형으로 털이 많이 나는 다모증, 얼굴과 등의 많은 여드름 그리고 비만을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낭난소증후군은 주위에서 많은 여성들이 앓고 있다. 가임기 여성 중 약 10 %가 갖고 있을 정도로 흔한 부인과 내분비 질환이다. 다낭난소증후군은 다음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진단을 하게 된다.



첫째, 월경 이상, 무월경 또는 희발월경인 경우와 둘째, 고안드로겐혈증 셋째, 골반초음파에서 다낭 난소의 소견일 때 다낭난소증후군으로 진단한다. 주로 호소하며 찾아오게 되는 무월경은 먼저 임신이 아닌지 감별을 해야 한다. 무월경은 즉, 무배란을 말하는 것이므로 배란이 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고안드로겐혈증은 다모증과 남성형 탈모로 나타난다. 그리고 여드름도 많이 생기게 한다. 골반초음파는 산부인과 의사가 시행하는 검사로 초음파 검사에서 난소의 크기가 정상 여성보다 커져 있고, 2~9 mm 크기의 작은 난포들이 20개 이상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 있으면 다낭난소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다.

다낭난소증후군은 비슷한 임상 양상을 보일 수 있는 질환들이 많으므로 쿠싱증후군, 부신 또는 난소의 종양, 고프로락틴혈증 그리고 갑상샘 질환은 아닌지 진단을 내리기 전 먼저 감별을 해야 한다.

다낭난소증후군 여성의 절반가량이 비만을 동반하고 있다. 인슐린 저항성이 다낭난소증후군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병인으로 생각된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하여 비만이 생기게 되고, 혈중의 인슐린을 증가시켜 오랜 기간 치료하지 않으면 대사증후군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혈중 지질단백질 이상을 증가시킨다. 혈중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질단백(LDL)을 상승시키고, 우리 몸에 좋은 고밀도지질단백(HDL)을 감소시키게 된다. 또, 다낭난소증후군은 무배란이 오랜 기간 지속시키게 되는데, 이는 혈중 에스트로겐을 상승시켜 오

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궁내막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일반 여성보다 난소암도 걸릴 확률이 2~3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다.

체중 감량과 복합경구피임제 동시 복용

월경을 잘 하지 않고, 몸에 남성 같은 털이 많으며 비만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다낭난소증후군을 앓고 있는 여성에서 우울증 같은 정신 질환 발병률도 높다.

다낭난소증후군의 치료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시작한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체중 감량이 비만을 동반한 여성에게 처음으로 권고하는 치료다. 체중을 감량하게 되면 혈중의 인슐린, 성호르몬(문류글로불린(SHBG)과 안드로겐을 감소시키게 되고 배란을 유도하게 된다. 여기에 복합경구피임제를 동시에 같이 복용하게 되면 부신과 난소의 안드로겐 생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 두 가지 치료만으로도 다낭난소증후군의 증상은 많이 좋아진다. 다만 임신을 원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경구피임제를 계속 복용하면 임신이 불가능하므로 난임클리닉에 방문하여 배란유도제 (클로미펜, 레트로졸 등) 도움을 받아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고인슐린혈증이 다낭난소증후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메트포민 같은 인슐린 민감제를 사용하게 되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등 여러 호르몬 치료제가 있다. 이는 위 방법으로 증상이 좋아지지 않을 경우 사용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을 경우 복강경 수술 치료로 커져 있는 난소의 일부를 절제하는 난소췌기절제술과 난소의 다낭 난포를 전기로 태워버리는 전지침술(electocetry)이 있다. 클로미펜에 저항성이 있는 환자에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로 안드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혼의 젊은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방문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최근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며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무월경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별 다른 이유 없이 무월경이 지속된다면 다낭난소증후군을 의심하고 빨리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미래에 난임이나 당뇨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일 것이다. [▶▶▶](#)

전동수 교수
순천향대 구미병원 산부인과



4차원 초정밀 방사선암치료기, 버사HD



버사HD 특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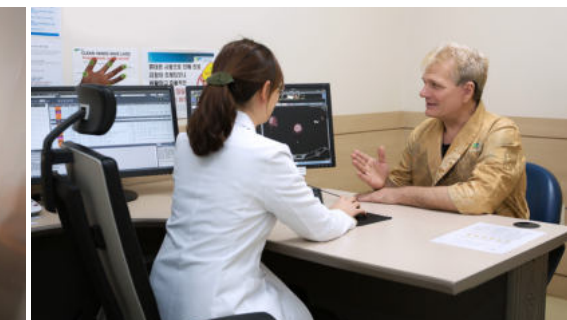
- IMRT, IGRT, SBRT(SABR) 등 다양한 치료법을 가장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구현
- 일반방사선 암치료기 대비 4배 이상 높은 분당 2,200MU의 고선량 방사선 치료 가능
- 치료시간이 짧고 치료 중 환자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정확하게 치료
- 실시간 영상추적기능
 - 움직이는 종양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정밀하게 암 조직에만 방사선 조사
 - 호흡에 의해 움직임이 큰 폐암이나 간암치료에 효과적

해외 암환자들이 찾는

천안병원 방사선암치료센터



- 최고성능 방사선암치료기 버사HD, 노발리스TX
- 암세포 제거 및 통증완화에 효과적인 고주파온열암치료기
- 서울 이남에서 가장 많은 방사선암치료건수 기록
- 전국은 물론 해외 암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방문



“남들보다 단 한 칸만 더 노력 하자”

임헌관 서울우리내과의원 원장

1985년 순천향대학교가 있던 곳은 말 그대로 강촌이었다. 학교 주변에는 온통 논과 밭이었으며 아주 작은 지방학교에 불과했다. 하지만 35년이 지난 지금 순천향대학교의 발전과 의과대학, 순천향대학병원의 발전은 눈이 부신다. 이 모든 것은 그 시절 젊음의 열정을 학구열로 불태운 수많은 동문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임헌관 서울우리내과의원 원장 역시 “남들보다 한칸만 더 하자”라는 마음으로 의사로서 걸어온 삶이 순천향대학교 발전에 힘을 보탬을 것이다.

글 전진용 사진 임수혁



서울보라매 공원 근처에 위치한 서울우리내과의원은 개인병원치고는 꽤 큰 규모를 자랑한다. 내과 전문의 임헌관 원장은 20년간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들과 아픔과 함께 나뉘었다. “신장내과이다 보니, 투석환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중증환자이며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이 환자들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모습들까지 봐야만 했습니다. 의사로서 너무 힘든 일입니다.” 임 원장은 학창시절부터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의대생이었다. 병약했던 어린 시절, 본인을 업고 한의원 과 병원, 보건소를 뛰어다니던 어머니를 보고 자신과 한 약속 때문이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다

“저를 업고 보건소로 가시던 어머니가 ‘이제 엄마가 너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92세가 된 어머니에게 매달 약을 보내 드리면 기뻐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의사가 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임 원장이 내과를 선택한 것도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어린



시절 내과는 무슨 병이든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막상 의사가 되고 보니 의사로서의 한계,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현실을 마주했지만 내과를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다. 의과대학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많은 추억이 있다. 미국의 주간지 타임지를 통해 해외의 시각에서 한국의 시국을 바라보고 영어 공부도 함께하는 동아리 ‘타임반’에서 활동했다. 의대생만이 아니라 타과의 학생들도 함께 하는 연합동아리여서 다양한 동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활동이었다.

“지금도 그 때의 동아리 동문들과 1년에 두어 번 골프도 치고 식사도 같이 합니다. 함께 토론하고 공부하던 추억과 우리 동아리의 홍순서 지도교수님과과의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큰 경험이었습니다.” 순천향대학교에서의 학창시절은 임 원장이 의사로서의 삶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순천향대학교는 벚꽃이 예뻐했습니다. 그런데 의대생들은 벚꽃이 만개한 시기에는 항상 시험이 있었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미 벚꽃은 다 지고 난 후였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기말고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새벽 4시에 나왔을 땐 온통 눈으로 덮였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도 걷지 않은 눈길을 새벽에 홀로 걸어가면서 이런 것이 의사의 삶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눈길을 걸으며 나의 의사로서의 인생에 대해 많은 생각과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임 원장은 지난 2000년 12월에 처음 개원을 했다. 처음 개원을 한 후 병원이 잘 운영되어 지금은 3개 층을 사용하는 더 넓은 병원으로 이전했다. 20년간 이 곳 지역주민들과 함께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투석 환자들이 많다보니 중증환자들과 계속 함께 해야 합니다. 사실 환자들 중에서 생을 마감하는 모습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살릴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는 고통을 맞 봐야 하며 그런 순간은 정말 힘들고 괴롭거든요. 하지만 성정 숙 솔로몬의 말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마음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고 자신의 일을 변함없이 하다보면 결국 시간과 세월이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임 원장의 가족을 만들어준 인연도 순천향대학교에서 만났다. 지금 부인은 순천향대학병원의 약사였다. 첫눈에 반해 다음날 백합 한 다발과 함께 마음을 고백했다. 그렇게 만난 인연은 아들하나, 딸 하나를 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었다. 아들은 인하대 의대, 딸은 조선대 의대에 들어갔다. 의사들과 약사의 완벽한 가정이 완성됐다. 임 원장은 두 자녀와 함께 병원을 운영하는 꿈을 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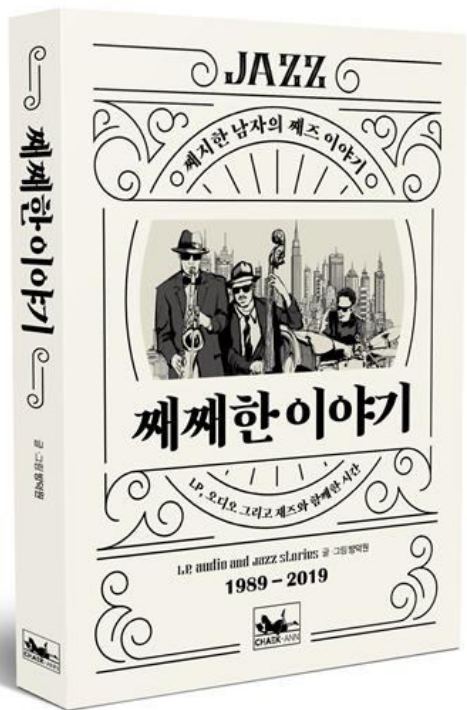
“아이들이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말에 그래도 제가 의사로서의 삶을 못살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꿈은 앞으로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과전문병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의사가 되는 10년 후 쯤에는 그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이들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면 더 좋을 테니까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임 원장은 의사의 길을 선택한 본인의 자녀들 뿐 아니라 후배 의사들에게는 “남들보다 한 칸만 더 하자”라고 조언한다. 공부를 하던, 진료를 보던, 환자와 상담을 하던, 다른 의사들보다 한 칸 정도라도 더 노력하면 큰 차이를 일으킨다는 설명이다. “의사로서 진료하고 환자를 대하는 것에 대해 ‘이 쯤이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만 더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병원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가 의사로서의 삶을, 환자로써의 삶을 그리고 병원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임 원장은 순천향대학교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잊지 않고 전했다. “아주 작은 지방대학이었던 순천향의과대학과 순천향대학병원을 지금과 같은 훌륭한 학교와 병원으로 발전시켜 온 병원당국과 모든 선배 동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순천향의 위상을 보고 이제는 너무도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한 저의 뒤에 순천향의과대학과 순천향대학병원이 있다는 것이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는 데 큰 힘과 위안이 됩니다.”

방덕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심장내과 교수의 신간

『짜짜한 이야기』



재즈를 가장 짜지(JAZZY)하게 이야기하는 책

살면서 '아~'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감동의 순간을 종종 맞이하게 된다. 대 자연의 경이로움 앞에 섰을 때, 생각의 틀을 깨는 사상을 접할 때, 삶을 꿰 뚫는 통찰이 담긴 글을 읽을 때, 시선을 압도하는 색이나 표현을 마주할 때 등이 그렇다.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아의 경지에 이른 연주자의 음악을 들을 때다. 이 책은 음악 중에서도 저자에게 매 순간 감동과 행복을 선사하는 재즈에 관한 이야기다.

재즈를 너무나 좋아해 '재즈광'이 된 저자는 현재 순천향대 서울병원 심장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 30년간 재즈를 듣고, 재즈 음반을 모으고, 재즈를 공부하며 있었던 일들을 사랑방 이야기처럼 펼쳐 놓는다. 그 이야기들은 지극히 사적인 것 같지만 은밀하지 않다. 바쁘고 정신없던 의대생 시기에 편안한 안식처이자 쉼터였던 재즈, 미국에서 지냈던 2년의 연수 기간 동안 외로움이 아닌 천국에서 보내는 최고의 휴식 같은 시간이 되게 해 준 재즈, 엘피(LP)와 오디오를 접하며 삶의 소소한 행복을 알게 해 준 재즈, 귀국 후 재즈에 빠져있는 많은 친구들과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재즈

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나누며 격조 있는 삶을 지속하게 해 주는 재즈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은 개인의 소소한 일상에 더해 재즈를 가장 쉽고 짜지(JAZZY)하게 풀어주는 입문서이자 이미 재즈를 즐기고 있는 사람이나, 재즈에 대한 조예가 깊은 전문가나 할 것 없이 모두를 재즈 담론으로 이끄는 재즈 예세이다.

오늘 '나도 재즈 한 번 들어 볼까?'하는 생각이 든다면, 혹은 재즈 생활을 하다가 가끔 '재즈를 제대로 즐기려면 어떤 음반을 들어야지?' 길을 잃는다면 〈짜짜한 이야기〉가 답이다. '이 좋은 재즈 음반을 나만 들고 있는 거야'라며 재즈 저변을 아쉬워하는 내공 깊은 재즈 마니아도 꼭 이 '짜지한 남자'를 만나라! 재즈의 깊은 바다에서 30년 넘게 헤엄치고서도 아직 듣고 싶은 재즈 음반이 많다고 말하는 그가 평생을 함께할 재즈 친구로 남을 것이다.

덧붙이자면 저자는 책을 집필하면서 필요한 음반 카셋, 음반 레이블, 기기 등 다양한 사진을 그림으로 그렸으며,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듯이 많은 사람에게 휴식과 안정을 전해주는 재즈를 알리기 위해 오늘도 재즈를 듣고 있다. ■방덕원

SCH NEWS

서울병원

최신형 사이버나이프 M6 가동,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



서울병원(병원장 서유성)은 11월 20일, 최신형 사이버나이프의 가동식을 갖고 본격 치료를 시작했다. 새로 가동하는 사이버나이프(CyberKnife® M6™ FM)는

치료계획 소프트웨어인 볼로시스템(VOLO™ optimization system)과 안전한 치료를 돕는 다엽콜리메이터(InCise™ Multileaf Collimator)를 장착한 최신 장비이다. 장아람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우리병원 지난 11년 동안 4천8백례의 방사선 수술을 시행해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한층 업그레이드한 최신 장비를 통해 더 복잡하고 다양한 병변을 빠르고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며 관심을 부탁했다. 사이버나이프는 칼(Knife)을 이용한 절개 수술 방식이 아닌 방사선을 조사해 움직이는 장기를 포함한 전신에 발생한 악성 및 양성 종양을 정밀하게 조준, 제거하는 로봇 방사선 치료기이다.

제8회 순천향대서울병원 협력병의원 행정포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병원장 서유성)은 11월 28일 청원홀에서 제8회 협력병의원 행정포럼을 개최했다. 간호 및 행정 관리, 병원

운영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포럼에는 협력병의원 간호 및 행정 책임자 60여명과 서유성 순천향대서울병원장, 장재철 대외협력부장 겸 진료협력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의학강좌는 김양기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교수가 ‘흡인성 폐렴(사레클리닉)’을 주제로 진단과 환자 관리, 주의사항 등에 자세히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은 임정임 간호부장이 순천향대서울병원의 경험과 장단점,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 김민아 원무팀장은 입원 중인 환자가 타 병원 진료 시 진료의뢰서를 지참해야 하는 등의 변경된 지침과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사회공헌, 교류협력으로 상호 발전 약속 순천향대서울병원·남산로타리클럽 협약



서울병원(병원장 서유성)과 국제로타리 3650지구 서울남산로타리클럽(회장 김관식)은 12월 3일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회의실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극빈 아동 및 어

르신을 위한 무료 안과 검진 및 수술 지원비 5만달러를 기탁했다. 상호발전과 공동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협약에 따라 순천향대서울병원에서 치료받는 저소득층 불우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비롯해 자원봉사활동, 소속 임직원을 위한 건강증진활동 등을 진행하게 된다. 협약식에는 서유성 병원장과 이성진 홍보실장, 박태성 사무처장, 임정임 간호부장, 송지영 사회사업팀장이 참석했다. 남산로타리클럽에서는 김관식 회장과 문덕환 전 총재, 안한성 전 회장, 김정호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의료사각지대 노인과 아동 안과 무료검진 순천향대서울병원·국제로타리3650지구 합동봉사



서울병원은 11월 16일, 국제로타리 3650지구와 함께 용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독거 어르신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 활동을 펼쳤다. 병원 외래 진료가 끝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신관

3층 안과 외래에서 진행한 무료검진은 기초시력검사, 안저촬영, 망막검사, 전문의 진료 등이 이뤄졌다. 이성진 안과 과장을 비롯해 선해정, 유승훈 교수와 안과 외래간호팀, 사회사업팀 송지영 팀장 등 병원관계자와 국제로타리 3650 지구 박수부 총재, 문덕환 전 총재, 서창우 차기 총재, 서울남산로타리클럽 회원, 로타렉트 회원 등 30여명의 로타리 회원들이 검진을 도왔다. 검사 결과 간단한 질환은 치료와 약 처방을 하고, 백내장 등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20여명은 국제로타리 3650지구와 순천향대서울병원의 자선의료후원금으로 무료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강과학CEO 31기, 순천향대서울병원 발전기금 1천만원 쾌척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건강과학 CEO과정 제31기 원우회는 11월 28일 노보텔엠버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수료식에서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에 발전기금 1천만원을 쾌척했다.



(주)브레인콘텐츠그룹, 해외의료봉사 기금 후원

(주)브레인콘텐츠그룹은 12월 16일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을 찾아 해외의료봉사 기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지난해 12월과 올 해 5월에 이어 세 번째 기부



이다. 전달식에는 문양근 (주)브레인콘텐츠그룹 총괄대표, 강진원, 장대용 대표이사, 강동균 이사와 서유성 순천향대서울병원장, 이성진 홍보실장(안과 교수), 박태성 사무처장, 박정균 고객지원팀장, 송지영 사회사업팀장이 참석했다. 문양근 브레인콘텐츠그룹 총괄대표는 “회사는 물론, 우리 가족도 이성진 교수와 순천향대병원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이성진 교수가 정성을 다해서 환자를 돌봐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며 “평소 베트남 퀴논시 백내장 수술센터 지원과 네팔 의료봉사 등 봉사활동도 열심히 분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기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위생을 사랑하는 우리’ SNS로 손씻기 중요성 알려 순천향대서울병원 2019 손위생 캠페인

서울병원은 최근 손위생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SNS를 활용해 ‘손위생 캠페인’을 펼쳤다. 10월 한 달 동안 각 부서 또는 개인이 ‘We love hand rub(손위생을 사랑하는 우리)’라는 주제에 맞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스타그램(http://www.instagram.com/handlove_sch)에 올리고 ‘좋아요’ 개수와 손사랑환자사랑팀 내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캠페인에는 회복실, 혈관센터, 재활치료팀, 병동 등 19개 부서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손씻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29개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시해 주목을 받았다. 심사 결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손위생은 생활입니다.’를 게시한 중앙공급실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우수 2팀을 비롯해 장려 4팀에게도 푸짐한 선물을 나눠주고, 모든 참가자에게는 커피상품권을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감염관리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부천병원이 최근 감염병 예방관리에 힘써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부천병원은 지난해 초 부천시에 홍역 확진 환자 발생 시 ‘홍역 의심 환자 진료 프로세스 및 감염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사회 내 홍역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특히 부천시 관내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 모의훈련’을 실시해 감염병 예방관리 능력을 갖췄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중심병원으로 참여하여 감염병 추이 파악과 대응 체계 마련에 힘쓰고, 참여 병원을 대상으로 감염 관리 교육 및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1등급’

부천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신생아 중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41개 상급종합병원과 4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내 전문 인력, 장비, 시설, 진료 과정, 감염 관리 등 총 11개 지표를 평가했다. 부천병원은 각 평가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천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NICU)는 2.5kg 미만의 저체중 미숙아와 중증 신생아를 집중 치료하는 신생아 전용 중환자실이다. 부천병원은 2001년 개원과 함께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운영하며, 경인 지역 고위험군 신생아를 위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장미애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 포상’ 수상

부천병원 장미애 진단검사의학과 교수가 12월 10일 엘타워 매리골드홀에서 열린 ‘2019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 포상 시상식’에서 ‘신진 연구부문-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내 보건의료기술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했으며, 신진 연구부문 표창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향후 발전 가능성이 촉망되는 신진 연구자를 선정해 수상한다. 장미애 교수는 희귀 난치 유전 질환인 비전형적 상글턴-멀턴 증후군의 원인 유전자 ‘DDX58’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는 등 유전 진단 분야에서 우수 연구를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제7회 외국인 환자 송년의 밤’ 성료

부천병원이 12월 19일 종합건강진단센터에서 ‘제7회 외국인 환자 송년의 밤’ 행사를 열어 외국인 환자들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물했다. 이날 행사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CIS(독립국가연합)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 김형철 국제의료협력단장, 주요 의료진, 국제의료협력팀 외국인 코디네이터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러시아식과 한식 저녁을 제공하고, 마임과 캐럴송 공연, 레크리에이션 등이 진행되어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들을 즐겁게 했다. 특히 고국에 떨어져 있는 외국인 환자 가족들이 보낸 응원 영상편지를 상영하고, 러시아어로 제작된 달력을 선물해 환자들에게 감동을 줬다.



신경외과 윤석만 교수,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취임

천안병원 신경외과 윤석만 교수가 최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윤석만 신임회장은 순천향대의대를 졸업했으며, 1999년 천안병원 신경외과에 부임해 현재 신경외과 과장, 외과계 진료부장으로 봉직 중이다. 윤 신임회장은 뇌혈관내수술에 정통하다. 2006년부터 매년 200건이 넘는 뇌혈관내수술을 통해 지역 뇌혈관 질환 환자의 생명을 지켜오고 있다.

마취통증의학과 유시현 교수, 대한통증학회 우수포스터상 수상

천안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유시현 교수가 최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9년 대한통증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유 교수가 발표한 논문은 ‘Mice에서 만성통증모델 제작방법의 비교연구: O링 vs Tie 방법(Comparative study of chronic post-ischemic pain models in mice: O-ring vs tie method)’이다. 유시현 교수는 논문에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환자 치료를 위한 임상연구에서 실험동물의 이질통을 한 달 이상 지속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보고했다. 유 교수가 개발한 방법을 이용하면 오랜 기간 추적관찰이 가능하고, 희생되는 동물의 수도 줄일 수 있다. 논문은 2020년 1월 통증분야 국제학술지 pain physician에 게재됐다.



석면환경보건센터, 정부 표창 무더기 수상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센터장 이용진)가 최근 정부로부터 4개의 표창을 수상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석면피해 구제에 기여한 공로로 받은 표창과 수상자는 ▲충청남도지사 기관표창(순천향대천안병원)을 비롯해, ▲인사혁신처장 표창(직업환경의학과 이용진 교수), ▲충청남도지사 표창(마취통증의학과 강규식 교수), ▲환경부장관 표창(석면환경보건센터 소원영 팀장) 등 개인표창 3개다.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전국의 석면피해 우려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 정밀검사, 사후관리를 전담하고, 석면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각종 연구도 수행하는 국가지정 석면 전문기관이다. 센터는 2019년 한 해 동안 석면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4,374명의 신규검진, 500여명의 정밀검사(HRCT)를 시행했으며, 2회의 힐링캠프를 개최해 석면피해자들의 심신안정과 의학적 관리를 도왔다. 센터는 또 검사부터 진료, 결과안내 및 구제신청까지 모든 구제 절차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석면피해자와 건강관리대상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평가 1등급 획득

천안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1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평가는 전국 83개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41곳, 종합병원 42곳)의 신생아중환자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충남·북 지역 종합병원 중 천안병원이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천안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은 ▲전담전문의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 ▲간호사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율 ▲감염관리 프로토콜 구비율 ▲중증도평가 시행률 ▲집중영양치료팀 운영 비율 ▲신생아소생술 교육 이수율 ▲모유수유 시행률 ▲중증 신생아 퇴원 교육률 ▲원외출생 신생아에 대한 감시배양 시행률 ▲48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재입실률 등 모든 평가지표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라이온스클럽 행복나눔 후원금 기탁

12월 10일 구미고아라이온스클럽(회장:강승수)은 행복나눔을 위한 의료후원금 100만원을 취약계층 환자를 위해 구미병원에 기탁하였다. 구미제일MJF라이온스클럽(회장:이상만) 또한 지난 5월 24일 의료후원금 100만원을 기탁하는 등 구미병원에는 따뜻하고 감동이 넘치는 후원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구미병원과 협력기관인 구미제일 MJF 라이온스클럽은 2004년부터 10년 넘게 취약계층 환자를 위해 매년 1~2회 꾸준히 김장김치와 환자의 치료비를 후원하고 있으며, 구미고아 라이온스클럽 또한 2013년부터 취약계층 환자를 위해 구미병원에 의료후원금을 기탁하고 있다.

재활환자 가족과 함께하는 사랑의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12월 22일 본원 향설교육관에서는 재활환자 및 가족 30여명이 참여하는 사랑의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재활의학과와 사회사업실이 함께 추진하는 이 행사는 몸이 불편한 재활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직접 케이크를 만들면서 위로와 공감, 소통의 시간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가족애를 가짐으로서 심리적 안정 및 삶의 활력을 높여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항성일 재활의학과 교수는 “의료진의 적절한 처방과 치료가 우선시 되지만 무엇보다 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환자의 용기가 필요하다”며, “가족의 끊임없는 격려와 사랑이 뒷받침 되어야 잔존기능이 향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활의학과는 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물리적·환경적 치료와 더불어 2014년부터 사회사업실과 공동으로 매주 1회 원예와 공예요법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재활환자들의 심리적, 정서적 지지를 돕고 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장 표창 수상

구미병원 의료봉사단(단장:양승부 기획실장)은 지난 12월 13일 오후 5시 구미시장애인 종합복지관(관장 김숙희) 주최로 장애인체육관 경기장에서 열린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좋은 사람들을 위한 송년의 밤’ 행사에서 한국교통장애인협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지역사회에 나눔과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기관과 개인을 선발해 수여하는 상이다. 구미병원의 의료봉사단은 인간사랑·환자사랑의 순천향 정신을 바탕으로 1984년 11월 창단되어 무의촌과 의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35년간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의사, 약사, 간호사, 방사선사 등 교직원 50여명이 자발적으로 함께 의료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농촌진흥청과 공동 기획하여 농번기에 의료봉사와 일손돕기, 문화공연 등 농촌 맞춤형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사랑과 나눔, 사회공헌에 기여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지역유일 알레르기 주사제 면역치료 실시

구미병원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주사제 처방을 통한 알레르기 면역치료를 시작하였다. 알레르기 주사제 치료요법은 피부반응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항원을 낮은 농도부터 높은 농도로 점차 올려가면서 정기적으로 주사제를 투약하여 알레르기 체질을 바꾸는 방법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되어 효과가 검증된 치료요법이다. 보통 3년~4년 정도 정기적(초기요법 주1회, 유지요법 4주~5주 1회)으로 주사를 투여하게 되며, 특히 집먼지 진드기와 꽃가루 알레르기에 효과가 좋다. 알레르기 주사제 면역치료 요법은 가능한 질병의 진행초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우리병원에서는 만7세 이상부터 치료를 권장한다. 알레르기 증상을 방치할 경우 소위 알레르기 행진(비염과 천식으로까지의 진행)으로 악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예방과 치료는 삶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

문의:소아청소년과 468-9230, 예약(콜센터) 468-9551

제2차 중환자 전문의로 역량강화 학술대회 성료 ‘중환자의학과 의료질 향상’주제, 바그다드 메디컬시티 개최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의료원장 황경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사장 이미경)의 무상원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라크 중환자 전문의로서 서비스 역량강화사업(2016~2023년/3,950만불)’의 일환으로, 11월 26일 이라크 메디컬 시티에서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향의료원-바그다드 메디컬시티, 제2차 중환자 전문의로 역량강화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해 ‘중환자 전문의로 다학제 학술대회’에 이어 2차는 ‘중환자 의학과 의료 질 향상’을 주제로 △중심정맥관의 초음파 유도 삽입(순천향대구미병원 영상의학과 양승부 교수),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순천향대서울병원 심장내과 방덕원 교수) △무균술과 손위생(순천향대서울병원 중환자실 주은향 수간호사)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바그다드 의과대학병원과 외과전문병원 중환자실 내부에서 이우령 교수가 감염관리와 손위생을 교육했고 양승부 교수, 방덕원 교수는 각각 Bed-side에서 임상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양승부 교수는 수술실에서 이라크 의료진에게 혈관성형술 등의 시술법을 전수해 호응을 얻었다. 주은향 수간호사는 중환자실에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베트남 등 3개국에 ‘글로벌 청년봉사단’ 파견



순천향대학교가 지난 30일 2019학년도 동계 ‘글로벌 청년 봉사단(G.I.V.)발대식’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순천향대는 ‘다문화 나누미 양성 해외문화 소수자 체험 베트남팀’ 22명, ‘전공연계 글로벌 봉사교육 프로그램 필리핀팀’ 33명, ‘적정기술 해외지역 연구조사 몽골팀’ 11명 등 66명을 3개국에 파견한다. 2020년 1월 5일부터 2주 일정으로 현지 견터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앞둔 ‘다문화 나누미 양성 해외문화 소수자 체험 베트남팀’은 △공존체험팀, △인식개선팀, △다문화포럼팀, △나눔교류팀으로 나뉘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다채로운 미션에 참여했다. 이들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다문화 감수성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은 물론, 감수성 확산을 위한 교내외 인식개선 캠페인도 전개했다.

홍보대사 알리미, 8년째 이어온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순천향대(총장 서교일) 재학생 홍보대사인 ‘알리미’ 회원들이 11월 28일 충남 아산시역사회 소외계층 주민에게 사랑의 연탄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알리미 회원들은 아산시 온양2동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계층 4가구에 연탄 2,000장을 전달했다. 8년째 이어진 ‘사랑의 연탄봉사’에서 전달된 연탄은 알리미 학생들이 교내 축제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으로 구입, 올해까지 1만6,000장을 전달했다. 학생들은 지난 5월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어르신 600명을 초청해 ‘맛있는 어버이날’ 행사를 열고 잔치국수 대접을 하는 등 따뜻한 마음을 전해왔다.

2020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 6.82대 1 기록

순천향대학교가 12월 31일 오후 6시 2020학년도 정시모집을 마감한 결과 750명 모집에 5117명이 지원해 6.8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지난해(6.63대 1)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나균 수능(일반학생전형) 모집단위별 경쟁률은 △의용메카트로닉스공학과 7.75대 1 △기계공학과 5.64대 1 △컴퓨터공학과 5.43대 1 △영미학과 5.13대 1 △정보보호학과 4.9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다균 수능(일반학생전형) 모집단위별 경쟁률은 △의예과 17.03대 1 △간호학과 10.5대 1 △전기공학과 8.75대 1 △경제금융학과 7.67대 1 △회계학과 7.31대 1 △사회복지학과 7.18대 1 △경찰행정학과 6.92대 1 △청소년교육-상당학과 6.73대 1 △특수교육과 6.63대 1 △식품영양학과 6.36대 1 △경영학과 6.25대 1 △에너지환경공학과 5.92대 1 △의약공학과 5.91대 1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5.62대 1 등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다균 실기(일반학생전형) 모집단위별 경쟁률은 △사회체육학과 26.82대 1 △스포츠학과 24.4대 1 △공연영상학과 15.4대 1 △스포츠의학과 12.95대 1 △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캄보디아 앙투엥 병원 운영 컨설팅 진행



순천향대중앙의료원 국제의료기획단(단장 유병욱)은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 앙투엥 이비인후과 병원 운영컨설팅을 위한 전문가 파견을 진행했다. 코이카와 진행하는 앙투엥병원 이비인후과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파견은 새병원 건립에 앞서 임시진료소의 효율성을 위해 마련했다. 유병욱 순천향대중앙의료원 국제의료기획단장, 김을선 순천향대서울병원 외래간호차장, 김진화 순천향대서울병원 감염관리팀장, 황영하 순천향대서울병원 시설팀장, 김용현 순천향대중앙의료원 국제사업팀장, 최정혜 순천향대중앙의료원 국제사업 담당 등은 간호, 시설, 행정 등 분야별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앙투엥 병원 경영진과 논의, 임시진료소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한편 앙투엥병원 이비인후과 역량강화 사업은 코이카와 순천향대중앙의료원이 2018년부터 5년간 9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순천향대의대, 의학과 2학년 임상실습 진입식 가운과 청진기 수여, 예비의사로서의 책무 다짐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성수)은 12월 14일 새로 만든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향설교육관 3층 제1강의실(TBL실)에서 의학과 2

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진입식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임상학교육과 정 소개, 학생 대표의 임상실습 진입 다짐과 선서에 이어 교수와 학부모들이 직접 의사 가운을 입혀주고, 청진기를 수여하며 축하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이성수 학장은 “임상실습 진입의 의미로 부모님과 교수님들, 환자들, 자신과 사회에 대한 다짐의 3가지 선서를 통해 특히 예비의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주인공이신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성수 의대학장을 비롯해 서유성 순천향대서울병원장, 조영덕 순천향의대동창회장, 교수와 학부모,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상훈 생화학교실 교수, 2019년 학술연구우수성과 50선 선정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이상훈 교수가 서울 코리야나호텔 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돼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교

수는 '만성콩팥병 기반 심혈관질환 타겟 기능강화 혈관줄기세포 치료제 개발'로 이공계 분야 우수성과 (15선)에 선정, 연구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기초연구를 통해 발굴한 프리온을 이용한 '프리온 엑소좀 치료제(엑소큐)'의 시작품 개발을 완료했으며, 이를 이용한 만성 콩팥병 질환 소동물 전 임상 연구까지 완료한 후 대동물 전 임상 시험을 앞두고 있다. 이 교수는 “향후 임상연구를 통해 만성콩팥병 및 심혈관질환 환자를 위한 프리온 엑소좀 치료제 출시를 목표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프리온 엑소좀의 항산화, 항노화 기능을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 외에도 순천향대 지주회사인 ㈜시스템바이오와 연계해 시제품 출시와 임상 1상 진입에도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16회 졸업 20주년 축하

2019년 11월 16일 토요일 웨라튼서울팰라스호텔에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제16회 졸업 20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조영덕 동창회장이 참석해 졸업 20주년을 축하했다.



정기이사회 및 송년회

2019년 11월 23일(토) 순천향의대 동창회 정기이사회 및 송년회가 있었다. 2020년 정기 총회 일정 및 순의대상, 학술상 심의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본과2학년 임상실습진입식 축하

2019.12.14 토요일 순천향서울병원 동은대강당에서 본과2학년의 임상실습진입식이 있었다.

조영덕 동창회장, 김은석 사무총장 참석하여 격려사를 전하고, 학생들에게 실습가운을 증정하였다.

